언론으로 본 남동의 한 해

2007년 주요행사

➤➤➤ 구민들과 함께 쓴 정해년 일기(지난해를 돌아보며)

시대일보 2007년 01월 25일 005면

남동구 기관연합 워크숍 개최

미래지향 남동비전 제시와 협력강화

인천남동구(구청장 윤태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남동비전 제시와 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기관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로 강화군 계발수련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윤태진 구청장 등 구청간부공무원 25명, 윤창영 남동구의회 의장, 이광선 남동장학사장 등 남동관 광사간부 15명, 김기수 교육장 등 동부교육청 간부 9명 등 총 50명이 참가한다.

워크숍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문화센터 한광일 원장의 특강과 쓴소리 남자는 조직문화 만들기 특강 ▲팀워크 강화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전통문화 배두기(팔음 등), 화합 한마당」, 도전의식 고취와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산악등반」, 화합한마당, 민속한마당(전통문화 배두기), ▲지역현장 프로그램으로 「안보견학 및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견학지 여행대 재래시장 탐방」, 지역문화 체험을 위한 「향토서문화관 탐방」 등이다.

김정환기자 jhgang@sidaeilbo.co.kr

인천일보 2007년 07월 18일 17면

태국기 게양 100%

최근 국경일에도 각 가정의 태국기 게양이 저조한 가운데 17일 제헌절을 맞아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두진아파트 주민들이 태국기 게양률 100%를 달성해 대조를 이뤘다.

/홍신정기자 (shinhong@cubshong)

시대일보 2007년 04월 23일 005면

미리 가보는 **제15회 남동구민 생활체육대회**

오는 28일 동대항 4종목, 번외경기 5종목 펼쳐

남동구(구청장 윤태진)는 오는 28일 9:30분에 남동공단 2호 근린공원 운동장에서 제17회 구민의 날 기념,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남동구청·남동구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 참여 예상인원은 10,000여명으로, 남동구의회,남동구민체육센터,남동구자원봉사센터의 후원한다.

식전, 식후 공개행사로 임권 클럽 연예인 한성국무대쇼가 남동구(체육회·지생단체)과 사랑팀(연예인,구의회의원)으로 펼쳐지며 30분간 진행되고, 풍물놀이 장면, NAC에어로빅, 복권무술 시연, 기예단 서커스는 시범공연, 각종 입장단 및 선수단 입장, 구민상 시상, 윤태진 구청장의 대회사에 이어 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남동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의 대회 개회 선언 후 간석3동 성수대표로부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가 진행되고 선수단 퇴장 후 각종 공개행사가 시작된다.

남민 전기 및 노래자랑과 가수쇼의 흥미진진 등도 진행되며 본대항 경기종목으로는 줄넘기, 남녀혼성 800M계주, 씨름대전기, 2인3각 릴레이 등 4종목(사진)이 있고, 남녀경기 5종목으로는 세발자전거 이어달리기, 풍선 릴레이, 대형제기차기, 노인자동 대회, 박터트리기 등이 개최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대회 때는 15대항 9종목을 펼쳤는나, 이번 대회에서는 경쟁보다는 화합을 위해 함께하는 체육행사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본대항 종목을 4개로 축소하는 한편, 마음껏 뛰고 즐길 수 있는 년의 경기로 구민들에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고, 금년 체육대회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고취,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고 지역문화와 체육단체가 어우러진 「함께 다함께의 장」을 마련, 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좋다고 전했다.

아울러도 주민들의 참여의 관속을 다지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마술쇼, 부흥쇼이, 연날리기 등 가족단위 행사가 다양되어 있어 구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리란 예상된다.

김정환기자 jhgang@sidaeilbo.co.kr

서울일보 2007년 12월 18일 화요일 011면 지방 10.3 x 12.6 cm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21일~26일까지 구의회 본관 1층서

박은영 기자 /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회장 서복이)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사랑나누기" 란 주제로 남동구의회 본관 1층에서 제18회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남동구 문화예술회 미술분과에서 그림의 붓(방법)을 회원 35명씩, 서예분과에서 "먹은 곡이며(진도)길이요" 의 서예 35점씩, 전체분과에서 "붓기 선 아이들(정경애)"외 시대 수필 1편 등 모두 78점이 전시된다.

서복이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로 시민 정서생활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관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영양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이웃문은 이웃을 돕는데 쓰여지게 된다.

기호일보 2007년 04월 16일 013면

가족 뮤지컬 신데렐라 인천남동구 5월 10일 구청(대강)사무실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5월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신데렐라'를 공연한다. (사진)

공연 장소는 남동구청 3층 대강당이며,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3회를 공연하며, 1회는 단체, 2·3회는 가족단위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신청은 17일부터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나 가주지 동 사무소, 주민복지센에서 방문 접수한다.

김영태 기자 ykim@kiolbo.co.kr

주도일보 2007년 04월 04일 화요일 007면 인천 9.7 x 16.0 cm

새보금자리서 업무 시작

남동구 논현고잔동, 신청사 이전

남동구 논현고잔동은 오는 17일부터 논현동 633-34번지에 건립된 연면적 1554.91㎡,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의 신청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총 사업비 23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된 청사는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시작해 1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9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17일부터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사의 전기, 통신, 사무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해 관계자들과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논현동의 주민들은 그동안 청사가 노후되고 의전보에 위치하고 있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신청사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논현 3역지 및 소래포구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논현부근아파트 12단지 내에 임시로 관광안내 팸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용호 기자 kyh7075@sudoilbowon.co.kr

현대일보 2007년 05월 17일 007면

19일, 전통성년식 재현행사

인천시 남동구 남동문화원은 19일 성년의 날을 기념해 오는 19일 남동구 관내 산전여자고등학교 대강당(가천관)에서 제2회 전통 성년식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성년이은 남녀 모두 성년이 되는 나이가 되면 본받고 존경하며 학문과 덕망을 갖춘 어른을 모시고 그 앞에 하여 성년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성년이 되는 남녀에게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어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해 이웃한 사회인으로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향당단 관리를 향후함의 이중이 선선한 의무를 지게 되는 주리의 미풍양식이다.

/박근식기자 kgs@hyundailbo.com

공인일보 2007년 10월 22일 월요일 017면 사회 19.7 × 15.2 ㎠

■ 남동구에 전국 첫 무주택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오픈

아버지와 들위한 담한집

19일 열린 아담채 개관식에서 참석인사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지소차 무주택 부자(父子)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가 인천 남동구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남동구 수산동에서 부자보호시설인 '인천아담채' 개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윤태진 남동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인천시는 시업주체 공모를 통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인천교회(대표·김진곤)를 선정하고 국비 6억900만원, 시비 6억900만원 등 모두 14억5천여만원을 들여 지상 4층, 건축연면적 1천330㎡ 규모로 이 시설을 건립했다.

인천여담채는 방 2개씩을 갖춘 전용면적 27.7㎡ 규모의 가구별 독립 주거공간 20실과 공동시설로 방과후 공부방, 식당, 조리실, 도서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주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정이며 3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3년 범위 내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입주 여건이 좋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과 무료급식, 생활지도와 상담, 학원등비·교통비·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인천시는 현재 양천 구·금융 등에 부자보호시설 입주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인천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 입주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한부모가정은 2004년 6천208가구, 2005년 7천478가구, 지난해 9천386가구, 올해 9천560가구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부자가정이 1천61가구, 모자가정이 7천919가구이다.

남동구, 실버취업 박람회 대성황

인천 기초자치단체중 최초 '관심집중'

인천 남동구는 인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관심을 이끄는데 대우월을 이뤘다.

7일 관계자에 따르면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와 (주)인크루트가 주관한 행사에는 구인을 위해 시해 도급 등 30개 업체가 직접 참여했으며 건물외에 임해도 50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1천3000명의 노인들이 참석했다는 것.

특히 박람회장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노인들이 이력서를 들고 구인 업체의 채용담당자와 면접을 보는 등 취업 열기가 불년을 못지않게 뜨거웠다.

행사장 입구에는 이력서에 부착하는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드을 위해 한국폴라로이드테크 인해정 모이다이파이에서 무료촬영 및 인화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최장과 현관 복에서는 무료건강검진과 함께 퍼포 및 현무 암 처방을 진시한는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한편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는 담임 취업을 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개주지의 희망직종에 맞춰 상담 및 취업을 지속적으로 알선할 계획이다.

김영욱 기자

서울일보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 성료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등 70여개 체험

박은영 기자 / '2007년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가 지난 7일 남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사물놀이와 여성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구청체육관장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고용·주차·교육·문화·체육·,관광 등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여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과 참여의 축제로 진국에서는 최초라는 것.

무대공연 행사는 인천시청소년수련관의 난타공연과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의 그룹사운드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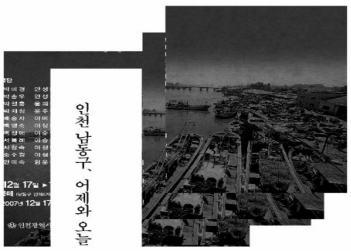
이 밖에도 석재심리, 목걸이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자연미술체험 등 총 70여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남동구 소년소녀오케스트라 합창단의 공연과 강해혼 마술사의 폐막식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윤창열 남동구의회 의장과 의원, 김기수 동부교육청장 등 각계각층의 지역인사와 많은 구민이 참석해 참여와 나눔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었다.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역실장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고 남동구청장 한국단자공업(주)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주민서비스관련 단체 70여 기관이 참여하여 축제 규모를 실감케 했다.

기호일보 2007년 12월 13일 목요일 007면 문화 10.4 × 16.9 ㎠



17일부터 테마전… 강형덕 소래포구 등 41점

인천 남동문화원은 오는 17~29일까지 '갤러리 봄빛'에서 남동구테마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남동구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테마로 하는 미술전시회로, 인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41명이 참여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강형덕의 '소래포구', 김기룡의 '수산동의 봄', 김봉순의 '10월의 남촌동' 등 모두 41점이다.

이경박 남동문화원장은 "이번 남동구 테마기획전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충족감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작가와 시민들 간 대화의 계기가 되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ykim@kyiolbo.co.kr

3구보 2007년 10월 09일 화요일 108면 사람들 15.6 × 17.4 ㎠

남동구민 건강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시작 신호와 함께 출발선을 통과하고 있다.

남동구민 건강마라톤 성료

황석인10km 남자부·김송이 10km 여자부 우승

인천시 남동구는 7일 구청광장에서 "제5회 남동구민 건강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7회 인천소래포구 축제"를 기념해서 열린 이날 건강 마라톤 대회는 가족단위 조스(5km)와 건강조스(10km) 2개종목으로 실시됐으다.

이날 대회에서 5km 남자부 우승은 최경권(38세 만수5동)씨가, 여자부 우승은 윤미순(34세 인천시만마루 동호회)씨가 차지했으며, 10km 남자부 우승은 황석인(44·인천아마추어마라톤 동호회)씨가, 여자부 우승은 김송이(21·대학생)씨가 차지했다.

이날 대회의 최연소 참가자는 임산인은(3세 인천,남동, 만수6동)이, 최장수 참가자는 조연한(77세 인천, 남동,만수3동)씨로 대회관계자와 참여자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한편 이날 마라톤 대회가 검행 되는 동안 남동구보건소는 참가자 전원에게 우유제 제공과 함께 감연제 날리시 및 바우업체인을 관개했다.

김종희기자/ykim@kyongbo.com

사할린 동포 610명 영주 귀국

내달 1일까지 14차례 걸쳐 인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등으로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동포 1세대들 60명이 고국에 영주귀국하기 위해 최근 인천공항 입국하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 동포 1세대들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 610명이 그리워하던 고국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한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총부본사 관(경광 무급손) 소속 삼남아가주어 무선봉사회(회장 임은식)와 만아동봉사회 소속 회원들은 최근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60명의 영주귀국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이번 영주귀국은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4차에 걸쳐 총 61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로 영주 귀국하며 이들 290세대 584명은 정부가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다.

본부는 이날부터 영주귀국을 위해 지난 1000년부터 일본과 러시아 원동 일시에 랜저까지 1,000여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로 영주귀국 했다.

이번 영주귀국은 한·일 양국의 재원의 지원아래 한국 정부가 일대 아파트의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일본측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왕관료와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

<kimds@jeonmae.co.kr>

경인일보 2007년 04월 25일 006면

인천 모래내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기공식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조합장·김성희)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새단장을 한다. 모래내시장은 23일 오전 '모래내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과 이원복 국회의원을 비롯 박영복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안상희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이상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회장, 윤태진 남동구청장, 강석봉 시의회 의원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모래내시장은 이날 기공식으로 아케이드 설치와 간판 통일화·매대 규격화·노점 구획정비·간선 지중화·고객센터 구축 등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공사를 오는 5월에 착공, 9월 추석 전에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이창열기자·trees@kyeongin.com

인천신문 2007년 12월 28일 금요일 006면 정치/행정 10.1 × 11.0 ㎠

신축 이전 만수1동 주민센터 업무 시작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오는 29일 청사 이전작업이 완료돼 31일부터는 신청사에서 민원인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3월 착공해 지난 5월에 준공된 신청사는 삼환아파트 옆 기존 옛 청사자리인 인주로 1181(만수동 983-5)에 건립됐으며 1층은 민원실, 2~3층은 회의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요한기자 yohan@it-today.co.kr

2008년 새해설계 ➤➤➤ 무자년 우리 남동은 .....

경인일보 2008년 01월 16일 수요일 017면 서울 15.4 x 20.8 ㎝

자연 공존 녹색도시로 '점프'

새해 우리 구정을 이끌게

>7< 윤 태 진 남동구청장

"인천 남동구는 인천 발전의 핵심지역입니다. 지역경제와 교통, 문화 등 도시의 환경이 잘 어우러진 도시로 재탄생가 환한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윤태진(사진) 남동구청장은 새해 구정의 핵심구치를 "시민과 발맞"으로 설정했다. 윤 구청장이 강조한 "상생과 발전" 속에는 인천 4기 중 인천의 10개 구·군 가운데 작년에 가장큰 유입해역 보인 연임에 성공한 사단이 깔려 있다는.

도 국내 최대 규모의 송도구역 첨동공단인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 남동구가 지역경제와 문화·도시환경 등 인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도 놓아지고 있는 현실을 뚫었다는. 구 예산구모이면 보면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작년 제기된 소재도구측재에는 수도권 시민 50만명이 찾았다. 인천을 대표하는 소재도구측재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자리잡을 놓다고 있다.

대개의 구측재와에서는 여러도은 한심되어 작년 8월부터 일주가 시작했다. 는 6만개의 개발사업이 내년에 한꺼번에 1만5천이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재·논한구역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사업, 주상·시장·도림시장 도시구획정리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다.

윤 구청장은 "올해는 조사해서도 남동구로의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며 "구세 확장단위이나 해개한 도시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이를 위해 인천대공원개 장수천·해안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대공원·소래포구 환경측 구축

서창2택지개발사업 착착 추진

한, 소래포구를 인계하는 시간한라측을 구축한다. 만들신개 공도산·장아산·오봉산에는 자생수목과 초화 등을 심고 특색있는 등산로를 개발한다 시업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일명 "포레스포리아(Forest-scotia)"를 만든.

윤 구청장은 "올해는 새정부 출범과 이듬 총선 등으로 국가과 지방공무지원의 등 새롭단 이해관계 갈등 로 국정과 변화의 역사적인 전환기 될 것"이라며 "시민과 싸우 관점에서 공존해는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일기자=sseo@kyongin.com

전국매일 2008년 01월 14일 월요일 013면 평영 11.7 x 17.0 ㎝

투시경 2008 남동구 정책방향

"복지사업 늘려 살맛나는 도시로" 저소득 무주택자 생활지원 주력

윤태진 남동구청장(사진)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도시와 환경, 시설복지 등이 균형을 이뤄는 도시를 만들어 남동구가 살맛 나는 주민 편의의 쾌적을 생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청장은 "지소득 무주택 세입자 등이 인권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선 구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시설복지 분야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개인은 최고 80만6,640원, 부부는 129만8,820원). 또한 만 65세 이상 를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노인가구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오는 7월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운동재활을 혼자서 수행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오는 3월2일부터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를 위해 '청소년 봉사후 아동대기'를 운영하며 저소득 가정의 아동복지를 위해 7월부터 아동권리복지센터를 운영한다.

구는 진관동 첨편도시 구축을 위해 장수천과 승기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구민들에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인주로와 소래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 도심 속 휴식공간을 갖춘 전원형 첨편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지역간평 개발을 위해 자녀의 구출주공아파트, 대우도 재건축사업이 완료돼 따라 물량 2,476주공아파트, 재개축사업을 비롯한 4개의 재건축사업과 함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논현2택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에는 지역에 1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서창정비지 개발사업, 장수·서창·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래 지향적인 주거도시 및 환경친화적 개발에 관점을 두기로 했다.

윤태 윤 청장은 "지역주민과 지난번 실시 결 청상을 위해 찾거지원 건강진단 서비스와 달 조기 발견 치료를 늘이고자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암표지자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 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평황수기자 (mchs@yeonmae.co.kr)

동아일보 2008년 01월 21일 월요일 019면 특집 36.7 x 47.9 ㎝

■ 윤태진 남동구청장 신년 인터뷰

자치구 승격 20주년… '21세기 명품도시' 지향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살기 좋은 남동구 만들기' 매진할 터

윤태진 남동구청장

평생교육기회 제공 위해 '평생 학습센터' 설치

'나눔과 조화'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 '최선'

웰빙 문화 조성 · 활성화… '애향심 고취' 배가

중부일보 2008년 01월 25일 금요일 102면 종합 15.5 x 24.9 ㎝

신·년·인·터·뷰 윤 태 진 남동구청장

"인천의 최고 명품도시 만들 것"

"무자년 새해는 세 정부 출범과 총선 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전반에 걸쳐 새로운 격동과 변화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남동구 역시 시대적 변화 발맞춰 그 높은의 축복 본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천시의 유일의 3번 연임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무자년 새 해를 시작하여 여김은 부부를 분명드.

지난 2007년을 구민 복지정진과 구민 발전을 위해 종력을 기울인 한 해 였다고 생명한 윤 구청장은 남동구를 명품도시 인천의 최고 자치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새 해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구청장은 "남동비전 2011"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 구민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구정

주요시책 주민참여 평가제 구축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등 추진

주요시업과 시책에 대한 주민만족여명 평가제도 구축, 구민 예산참여 기획회의 및 구민 제안제도 등을 활성화 시키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례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경영안정 자금 지원정책 간소화, 융자지원 한도의 확 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좋은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남동구를 1차원 조화가 넘치는 살기좋은 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특례소 상공인을 시회에 경쟁력있는 복지대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삶기좋은 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구청장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새터민과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남동구에 살고 있는 1200여명의 새터민과 사할린 영주귀국지들을 위해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 중인 윤 구청장은 "새터민과 사할린영주귀국자들을 위한 사회적응 기회를 확대하고 지활정착을 돕기 위해 복지시설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본과 민이 하나 돼 새터민과 사할린영주귀국자들이 고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전희명 청장도시 구면, 밝고 건강한 웰빙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살되 여유와 행복을 주구하는 문화체육활성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의 정성학습 기반 조성,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환격도시 구축 등을 올 해 역점시업으로 제시한 윤 구청장은 현재 추진중이 시책도 놓본 모으로 추진하게 될 시업들도 원벽하게 마무리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겠다고 "구민들이 구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김지자 sweet8@kookbo.com

연합일보

2008년 01월 18일 금요일 006면 인천 15.6 × 23.9 ㎠

남동구, 2008 노인정책 이렇게…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

남동구가 '건강한 노인, 즐겁한 노후, 활기찬 여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08년 노인복지 중점방향을 밝혔다.

지난 16일, 구에 따르면 올해 구는 노인복지 시책 5개분야 23개사업을 확정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생애 일 노후생활 여건 조성,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등 노인복지정책 중점도 세웠다.

이를 위해 구는 노인복지 예산을 전년보다 약어 3억3천만원(2.5%) 가량 늘어난 23억여 4천만원을 책정해 기본생활 지원, 경로당 신축, 요양원 신·증축 등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3월부터

노인 복지예산 늘려 233억원 책정
경로당 신·증축 등 복지사업 확대

시행하는 '취미형 노인 일자리' 사업 "주민의 노인인력 전담기구인 '남동구 노인인력 관리센터'"은 양질 등에 맞춘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규모 취미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만간 사업수행기관 노인인력 활용지원 등 취업지원 등 노인일자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2월부터 관련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7억3천3백만원을 들여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상세, 구는 노인전문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올 3월 한강변 제고 등 3개 노인복지시설 1개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총 2억원을 지원한다. 2008년도 월드컵 인천 구민 시민대회 및 노인복지구내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전시회 및 노인인력 관리센터 개소식 등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 2월부터 관련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7억3천3백만원을 들여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지원을 위해 올 3월 한강변 제고 등 3개 노인복지시설 1개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총 2억원을 지원한다. 2008년도 월드컵 인천 구민 시민대회 및 노인복지구내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전시회 및 노인인력 관리센터 개소식 등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 2월부터 관련 시행되는 노인장기요

열린구정, 참여자치

➤➤➤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

현대일보 2007년 02월 07일 007면

"남동구청이 달라지고 있다"

'CS-3M' 운영, 고객감동 행정 실현 총력

인천 남동구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함께 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CS-3M' 개화 운영으로, 매주 월요일(Monday), 아침에(Morning), 간부공무원이 현지로 에게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우리의 자세와 내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동료와 선·후배공무원에게 전하고 싶은 경험담' 등 기쁘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Mail)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는 방식이다.

업무적 상대가 아닌 메일을 통한 간부공무원의 감성적인 접근은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 수준을 제고하고, 더불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남동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친절 교육을 지양하고 아침 시간대를 이용한 전 직원 인성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Best Mind' 라는 형태 아침방송을 시작했다.

이는 업무시작 10분전 전한한 배경음악을 삽입한 'CS체시지'로 직원들에게 고객마족 행정의 기틀이 되는 친절마인드를 함양시키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침 일찍 구를 찾은 민원인은 "구청이 달라지고 있다"며 변화되는 관공서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보였다.

앞으로 남동구는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의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박근식 기자 bps@hyundailbo.com

시민일보 2007년 01월 05일 015면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민-관 협력체계 시범모델'

53개 시·군·구 중 '남동구' 선정

행자부서 올해 특별교부금 2억 지원받아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전국 53개 시·군·구 가운데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모델로 선정돼 올해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 받았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이후 행정자치부의 '주민서비스현신추진단으로부터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모형개발 연구'를 위해 1단계 개편 지역인 전국 53개 시·군·구들 의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심층을 실시, 남동구가 시범 사업 모델 7개 구 가운데 포함된 것.

이에 따라 남동구는 기관방문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하고 깊높은 세부사업 실현 및 기관의 자금심 고취를 위한 지방교부세(특별) 교부금 2억원을 지원 받았다.

구의 이번 선정은 정부가 추구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의 뿌지에 발맞춰 조직개편, 상담실 설치 등 단순한 외형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전담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춤형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유연한 서비스 체계의 기반 마련 주력과 함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기관장 및 민간 대표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에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이와 관련, 구는 공직에선의 한계를 보완해 저소득 주민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본인별로 복지지원을 발굴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후원자 개발을 통한 특별은 지원기반을 마련해 민·관이 함께하는 참된 사회복지 실현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박상도 기자 psd@siminilbo.co.kr

경인일보 2007년 08월 14일 i19면

국 정원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제6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인천시 남동구 지역 일부 아파트가 '태극기 100% 달기'에 도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극기 100%달기 '미션 (임)파서블'

13일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1동 현대 슬타운 아파트, 서해그랑블 아파트 등 관내 아파트들이 이번 광복절에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이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단지 안팎에 "8월15일 제62주년 광복절 태극기 달기 100% 도전!!"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남동구 일대아파트 내일 '광복절 도전' '나라사랑' 단지 곳곳 참여독려 현수막

이에 앞서 마지막 공휴일이었던 지난 7월17일 제헌절에는 간석3동 부건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태극기를 100% 게양한 바 있다.

이같은 태극기 달기 '붐'은 남동구에서 주민들인 전가정 전직장 태극기 달기 운동에서 비롯됐으며 구는 광복절을 맞아 현대슬타운 아파트, 서해그랑블아파트, 석산3점 1km 구간을 태극기 게양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구 관계자는 "국경일의 의미를 되살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전가정, 전직장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 이번 광복절에도 시범지역 아파트에서 100% 태극기 게양이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태극기 구입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태극기 게양 주수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임성훈기자 hoon@kyeongin.com

현대일보 2007년 03월 19일 006면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구현

남동구 사전심사청구제·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인천 남동구는 3월부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제출 전 약식신청 서류와 포스펜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민원지적과 ▷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지역경제과 ▷건축허가(인축계획심의대상제외)-건축과 ▷건축신고-건축과▷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교통과의 5종이다.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접수받아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관계부서 의견조회, 심의위원회심의 개최 등의 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 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어 실시대상이 정식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기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없다.

또한 사전심사시 기명조건고 결정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책임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불보시 지적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가부할 수 없다. 또한 3월 19일부터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유기민원에 대한 간촉은영을 실시한다.

무기한 민원사무 중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사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신뢰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이다.

이에 민원지적과에서는 2.10~3.10기간 중 전부서의 처리기간 '7일 이상인 150종 사무에 대해서 민원사무 단축운영 심의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관 부서별 검토 중 무기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사무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39종 단축사무를 선정하게 됐다.(평균 단축 건수 26%)

/박준재 기자 kgu@hyundailbo.com

시민일보 2007년 07월 11일 015면

혼란없는 '새주소 쓰기' 온힘

남동구, 민원지적과내 관리팀 가동 동사무소등서 이용안내 책자 배부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지난달 28일 조직개편 단행시 민원지적과내 새주소 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9일부터 발효 새주소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구 정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구에 따르면 관리팀을 가동,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일상생활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 '남동구 새주소 이용안내' 를 제작,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새주소의 고지·고시를 앞두고 새주소의 정비와 기존에 설치된 건물명판,로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금년중 완벽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조기 정착돼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용 감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공헌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10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행락지 주변 지방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박상도 기자 psd@siminilbo.co.kr

수도일보

'기초질서 생활화·정비의 날' 남동구, 대대적 행사 개최

남동구가 기초질서 지키기 범구민 운동 확산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집결 '기초질서 지키기 및 환경정비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구청장, 구의장, 구의원, 통장, 새마을협의회 및 각 자생단체 회원, 공무원, 구민 등 1000여 명이 모여 3코스(희망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남동세무서)로 나눠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민대표 2인이 기초질서를 생활화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도시환경 조성과 선진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민의 자율적 참여를 당부했다.

세부 행사내용으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제거 △도로변 방치된 생활쓰레기, 노상적치물 제거 △빈병, 오물, 영농 폐기물 수거 △가로변 쥐똥나무 주변 쓰레기 청소 △인도 위 담배꽁초, 휴지, 껌 제거 등의 환경정비 활동을 하였다.

구는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한 이번 행사로 기초질서 지키기 및 환경정비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촉구해 참여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복 기자

우리일보 2007년 08월 30일 목요일 013면 지역종합 15.4 × 12.4 cm

남동구, 고객불편 제로화 … 민원 친절평가제 운영

남동구 논현고잔동사무소는 고객불편 제로화 슬로건을 내걸고 민원업무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평가하는 일일 민원친절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29일 동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대민 친절 의식은 여전히 비해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가운데 일일 자체평가를 통해 공무원은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 민원인은 처리과정에 얼마만큼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

이에 따라 민원실 출구에 설치된 평가표를 설치해 만족, 보통, 미흡, 불만족 등의 항목을 통해 담당 민원처리사항을 공비로 민원인에게 평가를 받는다.

또한 고잔동은 설치해 민원인이 친절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 최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두형 동장은 "자체평가를 통해 고객의 소리를 직접 경고 반성과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며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수준 높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논현고잔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사무소의 전 직원은 매일 아침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첫 민원인에게 모두 일어나서 인사로 맞이하는 고객 감동 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경국 기자 yks@woorilbo.com

현대일보 2007년 07월 13일 006면

구정·의회 생중계시스템 구축

남동구, 시간절약·행정비용 절감 … 18일 착공

인천시 남동구는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의정활동을 실시간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공사를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은 인천시 및 각 군·구 본청에서만 활용하고 있으나, 남동구에서는 지체 초고속망을 활용해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 모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는 총 1억 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H/E시스템(해드엔드: 각 채널별 방송신호를 중계전송망으로 송출하는 장치) 및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본회의 의회는 옛날 개인PC 및 케이블TV망을 통해서, 보건소의 출장소, 각 동사무소에서는 개인PC로 의회 회의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구는 구정·의회 생중계시스템을 위해 지역 케이블 방송에 채널 4개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남동구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의정활동 전반을 사무실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해 업무공백 최소화로 시간절약과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의 시스템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직원만 볼 수 있다"고 밝히며, "향후 다양한 구정과 의정홍보 컨텐츠 개발로 인터넷 방송극으로의 전환을 통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와 장연 등 일반 가정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식 기자 bgs@hyundailibo.com

현대일보 2007년 06월 22일 007면

남동구 자치위원 워크숍

인천시 남동구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동별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워크숍'을 개최한다. (사진)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100여명의 자치위원들은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란 주제로 전문강사의 특강에 이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의, 구청장과의 대화, 한마음 화합의 장 순으로 1일차 일정을 마감했다.

특히 구청장과 주민자치위원과의 격의없는 대화는 적극적인 구정 참여 및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2일차에서는 "웃음과 열정이 넘치는 우리지역 만들기" 라는 특강 주제와 연계된 강의 및 소확신 산행 등의 일정에 참여하며, 형식적 활동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선도적 역할 지양으로 주민자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근식 기자 bgs@hyundailibo.com

경기매일

세금납부 전화 한통화면 OK

남동, 12월부터 지방세 자동납부 ARS운영

남동구가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납세자의 편의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080 무료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지방세정시스템(세동이)은 올 12월에 행자부 표준지방세정시스템으로 바뀌기에 이 시기에 맞춰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을 운영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구는 5천만원의 예산과 전용전화번호 080-XXX-3945(세금내요)를 확보하고 금융권과 가상계좌 개설도 준비중이다.

지방세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은 납세자의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금액 등을 음성 및 문자로 안내를 받고, 납부를 원할 경우 음성 및 문자메세지로 입금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을 안내받는다.

또한 납세자가 상담을 원할 경우 (근무시간 내)에는 담당자와 연결을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납동구는 이 제도가 시행 될 경우 납세자는 연중 24시간 무료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지방세(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과오납금 등)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담당자와의 통화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민원기자 km@gnmail.net

현대일보 2007년 02월 05일 008면

문집 출판기념식·작품 발표회

인천 남동구 만수2동 주민자치위

인 현 남동구 만수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춘홍)는 지난 1일 만수2동 사무소에서 자치센터 수강생, 하부모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장 등 90여명을 초대하여 제3회 주민자치센터 문집 '우리들의 이야기' 출판 기념식과 작품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문집 출판은 퍼제희 강사님의 지도아래 2006년도 독서회원, 클럽기 교실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쓴 동시, 생활문, 독서감상문, 이야기 글 등 지난값이 넘치는 표현과 생각들을 담은 세 번째 글 모음집으로 종리면이 수백꾸으며, 770,000원의 예산을 소요, 150부를 발간하여 행사 후 문집 발간에 참여한 학생과 하부모님 등에게 배부했다.

한편 다이퍼를 겸한 개회전 이날 행사 낭송 및 작품 발표는 총 15명이 참가하였으며 유하정 학생이 "발해의 역사", 최지연 학생 이 "정보의 바다 인터넷" 등부한 학생의 "가 방" 등 총 16편의 동시 낭송과 특서 감상문을 발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춘홍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은 이번 첫 집은 행사를 통해 만수2동 주민자치센터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높은 호응도에 부응하고 자치센터 활성화는 물론 이번이 수강생들의 자부심과 참여의식 높이고자 향후 지속적으로 문집발간 및 발표회를 개최보파 약속했다.

인천/박근식기자 bgs@hyundailibo.com

2007년 09월 21일 금요일 011면 지방 15.6 x 6.9 ㎝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함께모여 연구하며 살아가요

박은영 기자 / 남동구는 지난 19일 구청 소강당에서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20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우수사례는 지난 6월 1차 세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며, "오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동은 오는 10월중에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평가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가족도, 우수성, 확산수월성, 호응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만수2동의 지원과 희망이 있는 만삼이동 도봉동 마을이 최우수에 영예를 안았으며, 간석1동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만들기', 논현고잔동의 '하나되는 논현 발전하는 고잔'이 우수를, 나머지는 모두 장려로 선정되었다. 발표 후에는 만수2동 우수동아리인 어린이 재즈팀의 공연이 이어져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남동구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한 사례전파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질적향상을 위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3회 인천 소비조구축제 때 주민자치센터 미니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수도권일보 2007년 11월 28일 수요일 007면 인천 19.6 x 11.0 ㎝

"인천의 핵심도시 우뚝 서기 혼신"

남동구청장 2008년도 구정운영 방향 밝혀

올해도 남동구청장이 26일 제182회 남동구의회 제7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구정연설을 통해 2008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구의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미리권 이날 연설에서 윤 구청장은 "올해는 우리구가 광명학습예비도시 선정으로 광생교육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제가 복지봉사센터 6개소에 복지네트워크 구성,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 및 제7회 소래포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동산단 Green Street 및 호구포길 Green Road 조성, 학교 공원화 조성 사업 등 쾌적한 남동건설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 왔으며, 현재 추진중인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기능, 미관,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주거도시로 품격있게 건설 하겠다"고 밝힌 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2008년은 남동구가 자치구로 승격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의미가 무척 깊다"며, "구정의 역량을 한데 모아 인천의 핵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구청장이 밝힌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구민의 구정참여확대와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정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구정운영에 주민참여형 광기계획을 구축하고, 구민의 여산참여 기회 확대, 구민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구민자치행정을 내실화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총액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 인프라 구축, 행정정보 고도화를 통한 유비쿼터스 지방전자정부 기반다짐과, 논현고잔동 분동을 대비한 동 청사 신축 및 노후된 간석2, 3동 청사 신축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남동 지향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만수1동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을 현대화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만900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13억여원을 지급한다.

특히, 논현동에 입주한 새터민의 자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업설명회, 사회적응 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지원에도 적극 힘준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립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호 기자 kyh70758@outdoiwan.co.kr

경기신문 2007년 12월 20일 목요일 010면 지역 15.5 x 12.2 ㎝

남동구 구민 169명 대상 5개항목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94% "공정처리 만족"

평균 86.9%… 친절성>구정전반>신속성 順

인터넷 통한 신고 신속보완 등 우수사례 발굴

인천 남동구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86.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유기한 민원 및 구 홈페이지 이용자 169명(민원 150명, 인터넷 19명)을 대상으로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이용 편의성, 구정 전반적에 대한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 항목은 민원처리의 공정성으로 전체 응답자중 94.1%(159명)가 "공정하다"고 답변했으며 그 다음으로 친절성 90.6%(153명), 구정 전반적인 만족도 86.3%(146명), 신속성 84.7%(143명), 이용 편의성 78.7%(133명)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신고와 관련 인터넷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와, 건축물 멸실신고 처리시 미비서류에 대한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 후 보완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주는 등 민원 응대에 대한 친절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그리나 인·허가 부서의 민원신청 절차의 복잡성, 구정 정문에서 후문까지의 안내사항 미흡,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전송요청 등이 지적돼 향후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는 이번 조사결과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준 민원 편의성 항목의 지적 사항에 대해 내년 만족도 조사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희기자 lyh@

아시아일보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 015면 지방 15.6 x 9.1 ㎝

남동구 민원서비스, 87% 만족

169명 조사… '공정성' 항목 가장 높아

남동구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86.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유기한 민원 및 구 홈페이지 이용자 169명(민원 150명, 인터넷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이용 편의성, 구정 전반적에 대한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 항목은 민원처리의 공정성으로 전체 응답자중 94.1%(159명)가 공정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절성이 90.6%(153명), 구정 전반적인 만족도가 86.3%(146명), 신속성이84.7%(143명), 이용 편의성이 78.7%(133명)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신고와 관련 인터넷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와, 건축물 멸실신고 처리시 미비서류에 대한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 후 보완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주는 등 민원 응대에 대한 친절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인·허가 부서의 민원신청 절차의 복잡성, 구정 정문에서 후문까지의 안내사항 미흡,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전송요청 등이 지적돼 향후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는 조사결과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준 민원 편의성 항목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내년 만족도 조사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연 기자 K T 8666@yahoo.co.kr

글로벌 인재육성

➤➤➤ 남동의 소중한 꿈이, 미래가 자라납니다.

경기신문 2007년 01월 31일 008면

남동구 학교교육경비 확대지원 공교육 내실화 추진

윤태진 남동구청장 "인천의 중심도시인 남동구를 통해 인천의 문화 정책 방향을 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급변하는 구민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민 서북벽일과, 여성평생능 정기연수회 등 다채로운 시역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개원 1년째를 맞는 남동문화원이 위상을 높이고 수준 높은 지방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해 남동문화원과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와 함께 열악하다고 지적 받는 교육 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 청장은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해 공교육 내실화 및 지방교육 발전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전통문화 체험캠프 및 탐방교실 운영 등 다양한 문화·정보·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해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최대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개선해 갔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올해 중으로 건설주공과 구일주공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안주하게 되면 심각한 교통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현택지와 한화택지 개발로 남동구 신세에 교통 유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교통 정책 방향에 대해 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 이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69

윤 태 진 남동구청장

시대일보 2007년 09월 12일 수요일 006면 인천 15.6 × 14.2 ㎝

교육복지 증진 위해 손잡아

남동구-동부교육청 투자우선지역 지원협약 체결

인천 남동구와 동부교육청(교육장 김기수)이 2007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에 따른 협약식을 11일 동부교육청에서 가졌다. (사진)

11일 구에 따르면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약화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과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대상은 남동초, 동부초, 인수초, 장소초, 만성중, 만수북중, 만월중으로 만수지역 7개 초·중학교와 13개 유치원이며, 이번 협약식 체결로 저소득층·유아 아동과 학생들의 학력증진 및 문화적 욕구가 충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5년간 구는 10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동부교육청, 기타연계기관(만수종합사회복지관등 6개기관)에서는 30여억원등 총 40여억원을 투입해 학습, 문화, 심리·정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등 교육·문화·복지분야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교육적 취약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윤태진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도 선정대상지와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으며, 지역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박근식 기자 bgs@hyundailbo.com

인천신문 2007년 04월 30일 006면

남동구 평생학습도시 선정 박차

예술대학 유치·사회교육기관 설립 발벗고 나서

지역 문화·체육, 청소년 복지 등 세부시책 추진

인천시 남동구가 평생학습기반 사업 전담 등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각종 고득점책 개발에 팔벗고 나섰다.

구는 이달 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마치고 지역 정보 교육정책, 지역 노동인력 개발 정책, 지역문화 및 체육, 청소년 복지정책 등 세부시책을 대폭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 전체의 17개가 가운데 남동구에 위치한 수련관은 지난 2002년 설립된 17평에 불과해 인구수 대비 수련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복지회관은 인천 전체 13개 중 2개, 문화회 역시 7개 중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구는 인구수 대비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 수는 점기목적으로 공기 평요성과 노령화에 대비한 학습 공간 확보를 위해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나섰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증가 등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가 확충될 수 있도록 경기개인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신문과 언론권 대학을 유치하고 예술고등학교 신설에 이어 예술대학을 유치하는 한편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기관과 상담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야외교육장을 지역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 유치 선정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통해 지정과 정책 입증 및 권리를 전 진적으로 구축 이권에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평생학습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리모, 평생학습정보 제공책임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남동구에의 역시 지난 9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평생학습교육 마련과 평생학습원 유치,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가 송분한 내부 검토와 관리 없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지만 개발도 면한 인구증가 요인과 그에 따른 노령화가 대상되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마련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구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남동구의회 권석규 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인 공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남동구는 이미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느정도 완비가 돼 있는 만큼 구민을 위한 최상 교육도시 선정이 곧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재원기자 xtreme@ictoday.co.kr

朝鮮日報 2007년 09월 04일 화요일 114면 지방 16.4 × 24.7 ㎝

현장 패트롤 구월중학교 '영어 도서관'

"영어 비디오 계속 보니 조금씩 들려요, 신기해요"

빈 교실 3개 개조해 지난 6월 문 열어
점심 시간·방과후 시간에 학생들 북적

남동구 구월중학교 3층 '영어 도서관'에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 몰려든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한쪽에선 4명의 학생들이 헤드폰을 끼고 '영어 동화'를 듣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원탁에 앉아 영어 잡지를 읽고 있는 학생들이 보였다. 한 무리의 아이들은 비디오 앞에 몰려 앉아 영어 만화 '심슨'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막도 없이 영어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만화를 들어져라 보다가 간간이 웃음을 터뜨렸다.

"다 알아듣지는 못 해도 계속 보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씩 들려요. 신기해요."

1학년 정재연(13)군은 "점심시간마다 여기 와서 만화도 보고 영어 동화책을 읽으니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 같다"며 웃었다.

이 특별한 영어 도서관('English Park')은 비어 있는 3개 교실을 개조해 지난 6월 15일 문을 열었다. 도서관은 영어 도서실, 모둠학습실, 영어교사 연구실로 구성돼 있다.

영어 도서실에는 영어 DVD와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고, 영어 동화책을 들을 수 있는 어학 기기도 갖춰져 있다. 벽에는 영어로 씌어진 커다란 세계지도가 붙어 있고, 도서관 뒤편에는 영어 잡지도 여러 권 꽂혀 있다. 학생들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 볼 수 있게끔 대형 영한사전도 놓여 있다.

도서관에 비치된 영어책은 약 1500여권. 대부분 그림이 있는 소설, 수필, 동화책들이고 수준별로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다. 점심시간과 방과 후 1시간 동안 개방하는데, 하루 약 50~60명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자율시간마다 영어 스토리북을 각 교실에 보내 전교생이 교실에서 영어책을 읽기도 한다.

선생님들은 '심슨' 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계속 볼 수록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도서실에 한번 올 때마다 매일리지 도장을 찍어주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도서관 분위기를 낯추고 있다.

헤드폰을 꽂고 동화 '미운 오리새끼'를 듣고 있던 양수민(13)군은 "일주일에 3~4번은 꼭 영어 도서관에 온다"고 했다. "심심할 때마다 와요. 심슨도 보고, 책도 읽다 보면 점심시간이 금세 지나가거든요."

이 학교 김태림 영어담당 교사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영어를 자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어 도서관을 마련했는데 예상대로 반응이 좋다"며 "시교육비도 올 이면서 가정 환경으로 인한 영어 수준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ostinato@chosun.com

시대일보 2007년 04월 04일 005면

'우리아이 경제교육 어떻게 할까?'

남동구, 체험으로 배우는 어머니 경제교실

남동구는 지난 3일 "우리아이 경제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어머니 경제교실을 운영하여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경제신문' 바원배 대표이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의내용은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경제교육 현황, 경제교육으로 달라진 아이들, 나의 금융지수 진단해 보기 등 2시간 동안 경제교육의 필요성 및 생활속에서 겪게 되는 경제 관련 고민들을 강사와 함께 풀어보는 실제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4월5일: 생활 속 경제체험 ▲4월10일: 보드게임으로 체험하는 금융교육, ▲4월12일: 올바른 용돈관리 등 3회에 걸쳐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환기자 gkgang@sidaeilbo.co.kr

朝鮮日報 2007년 04월 09일 114면

수도권 최대 인천시립도서관 5월 착공·2008년 12월 완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총 214억원의 예산을 투입, 남동구 구월동 610-4에 연면적 1만300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음달 착공, 2008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새 도서관은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기관에 인접해 있다. 인천지하철 문예회관역에서 내린 버스를 타고 오갈 수 있다.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김진성시는 "새 도서관은 '열린 도서관' '평생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지향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권리증진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인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다양하다. 자료실, 대출실, 열람실과 함께 다목적 공연장, 휘더·교양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들 시설은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장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지상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 어린이 문화교실, 수유실, 장애우 열람실, 전시실, 향토자료실, 지상 2층에는 관람자료실, 정기간행물, 신문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특수자료실, 외어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 3층에는 평생학습실과 컴퓨터교육원, 시청각실, 세미나실, 종합자료실 등이 꾸며지고, 지하 1·2층에는 주차장과 식당, 매점, 열람실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도 연람실·성별·기능별 열람실과 법률자료실, 종합자료실은 물론 평생교육실, 문화교실, 그룹스터디실, 유서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1921년 건축된 기존의 시립도서관 건물이 낡아 디지털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과 문화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건설사업(BTL)으로 시립도서관을 선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8일 부선영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칭)인천지식정보센터(위원)와 지난 2월 민간투자건설사업(BTL)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자료 수집과 정리, 이용서비스 등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민자사업자는 시설을 유영·관리하게 된다.

인천시는 영종도서관과 수봉도서관, 관민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지역문관으로 건립, 2007~2008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ontario@kookje.com

시민도서관 조감도.

남동구 구월동에… "시민 문화공간으로"

시민일보 2007년 08월 22일 수요일 009면 인천 21.0 x 10.7 ㎠

평생학습도시 조성 본격화

남동구 교육부 선정따라 컨설팅사업등 학습환경 구축 온힘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1차 컨설팅을 갖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는 남동구가 부산 영도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북 포항시, 경남 함안군 등 4개 자치단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7년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21일 구는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 준비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예비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0일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적 사업조성과 내실화를 위해 비율규 위원장(인하대학교 교수), 문정수 위원(인천 북구도서관 평생학습팀장), 김민희 조정위원(한국 교육개발원 박사)을 중심으로 컨설팅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어 자문단은 21일 평생학습도시의 방향설정을 위해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면담을 갖은 한편, 지역사회 및 주민의 욕구조사를 위해 담당국·과장 및 실무자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 외 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컨설팅 회의를 가졌다.

구는 오는 9월7일 경남 함안에서 2차 컨설팅, 11월21일 남동구청에서 3차 컨설팅을 통해 1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부터 추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인천지역에서 2003년 연수구, 2005년 부평구, 2006년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시·군·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해 해당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도록 3년간 2억씩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박상도 기자 psd@sminilbo.co.kr

현대일보 2007년 04월 02일 007면

저소득층 교육비부담 덜어

남동구 36명 선정, 1년간 전과목 학습지 지원

최근 고가의 사교육비·학원비 등으로 인해 미취학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서는 나날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에 남동구는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된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으로, 관내 17개 동사무소를 통해 관내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가정 자녀들을 추천받아 미취학·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총36명을 대상으로 1년간 전과목 학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운영방법은 학습지업체에 위탁운영하되 개별과목 1~2개 단위가 아닌 최소 7개 이상 과목을 대상으로 1:1 가정방문 학습지도(가정상담 병행)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히 학습교사를 후견인으로 지정, 개별 상담일지를 작성케해 아동이 처한 가정, 사회, 정서적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남동구는 제품의 품질·가격·선호도·대표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및 성적중심 학습지도에서 벗어난 지속적 후견 역할자로서의 교사 신분도가 높은 업체로 선정하되, 체계적 학습프로그램, 부모의 역할부재로 인한 저소득아동의 적성 발굴 등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한 학습 지도가 가능한 업체로 선정,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간 학습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구 담당자는 "이번 지원은 저소득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욕구를 해결하여 중으로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함으로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이웃돕기 활성화를 통해 더욱 많은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근식 기자 bgs@hyundailbo.com

경인일보 2007년 03월 16일 I17면

부정·불량식품 근절 캠페인

인천 남동구는 15일 오전 문얼여고 등 관내 4개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등교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캠페인(사진)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학생들에게 지퍼팩 및 수첩을 배부하면서 식중독 예방요령 및 부정·불량식품신고 안내전화번호(1399)를 홍보했다. 또 위생관리가 소홀한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유해물질이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 및 예방 활동을 펼쳤다.

/임상훈기자·hoon@kyeongin.com

우리일보 2007년 07월 02일 018면

한화건설, 인천 논현지구 6개 학교 부지 기부

인천 논현택지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건설이 6개 학교 부지를 기부키로 했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앞으로 논현택지지구에 8천20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예정인 가운데 3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등 모두 6개 학교 부지를 기부한다는 것.

시교육청은 한화 측 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달 중순에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화건설 측은 이들 학교 부지 확보에 890여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교육청은 부지를 넘겨받아 학교 건물을 신축한다.

한편 한화건설의 이번 기부 결정은 향후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등의 대규모 아파트 사업지구의 학교 부지 부담 주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근철 기자

shin@woorilbo.com

현대일보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007면 인천 10.4 x 14.0 ㎠

남동구 논곡초교 생태숲 준공식

인천시 남동구는 22일 학생들의 정서적 순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논곡초등학교에 조성한 '학교 생태 숲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하여 김기수 동부교육장, 구 의원 및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시비)을 들여 지난 5월 착공, 11월 1일에 공한 논곡초등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은 조경면적 980㎡으로 이팝나무 외 47종 6,682주를 식재했다.

트윌리스와, 나무다리, 관찰데크, 생태연못, 숲속 쉼터 등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 생태 숲은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식 기자 bgs@hyundailbo.com

푸른도시 쾌적한 환경

➤➤➤ 편안한 휴식처, 삶의 활력소를 재충전하라

시대일보 2007년 03월 13일 005면

남동구 새봄맞이 산지정화 활동

인천시 남동구에서(윤태진 구청장)는 민·관·군이 참여하여 2.24일부터 3.12일까지 3회에 걸쳐 연인원 1,000여명이 참여 한 가운데 산지정화 활동[푸른산사랑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산지정화 활동은 새봄을 맞아 산림을 찾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소래산, 관모산 등을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산지 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 등 산림 내 무단 투기된 각종 쓰레기 10톤을 수거했다.

한편 쾌적한 산림 휴양 환경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 비치되어 산불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김경환기자 ghgang@sidaelbo.co.kr

錦湖日報 2007년 01월 04일 007면

재활용 쓰레기 적체 '끝'

남동구, 주2회 운영 민간수거체계 마련

인천시 남동구가 올해부터 인천에서 처음으로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주 2회로 전환시켜 운영키로 했다. 구는 또 재활용 배출 요일도 동별로 분일시켜 주민혼란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3일 남동구에 따르면 그 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던 구월동 지역의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민간대행업체로 전환, 재활용쓰레기만 수거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동별로 주 2회 수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월1동은 월, 목 ▶구월2, 4동은 일, 수 ▶구월3동은 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이번 구월동의 민간대행업체 전환으로 남동구는 지난 1997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던 재활용 수거를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대행체계로 전환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모든 동의 재활용 수거가 직영 체계에서 민간대행 체제로 전환케 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재활용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담반을 구성해 주 2회 수거가 가능한 대행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게 됐다"며 "구월동 지역이 성공적인 사례로 운영된다면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yjkim@kyohoibo.co.kr

朝鮮日報 2007년 11월 13일 화요일 A16면 사회 16.1 × 20.2 cm²

"와~ 우리 아파트 뒷산에 도롱뇽 마을 생겼어요"

인천 만수 3동 주민들 '도롱뇽 지키기' 앞장 생태체험장으로 꾸며

대도시의 아파트 숲과 대형 타넬 옆, 높이 201m의 작은 산 속에 주민들의 힘으로 도롱뇽 마을이 생겼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벽산아파트 단지 뒤 만월산 타넬 옆의 작은 길을 따라 200m쯤 올라가다 보면 '만삼이네 도롱뇽마을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말이 붙은 아치와 만난다. 지난달말 시설공사를 끝내고 새롭게 문을 연 생태체험장 입구다. 그곳을 지나 아트막한 산길을 오르면 옆으로 흐르는 깨끗한 시냇물을 볼 수 있다. 4~5월이면 투명한 도롱뇽 알들이 가득하고, 주변에는 가을철까지 도롱뇽들이 함께를 치고 다니는 시냇물이다. 도롱뇽은 1급수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

이 동네 주민들은 작지만 생태계가 잘 보존된 이 산에 도롱뇽뿐 아니라 다슬기와 가재까지 산다는 것을 알고 올봄부터 도롱뇽 지키기 사업을 시작했다. 통장자율회와 주민지치회가 머리를 맞대 계획을 짜고, 환경단체와 주민자치센터 도움을 받아 인천시에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냈다. 곧이어 등산객들이 도롱뇽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난 4월부터 공사를 했다. 시냇물 주변에 나무로 자그맣고 예쁜 울타리를 치고, 시냇물과 등산로가 겹치는 곳에는 통나무 다리를 놓거나 다른 쪽으로 우회 등산로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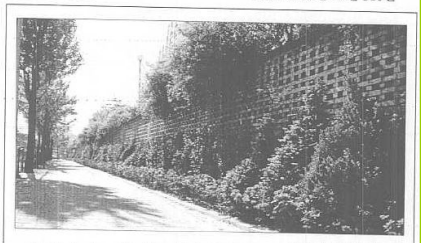
통장자율회 이어덕(여·56) 회장은 "도롱뇽 산란기에는 주민들이 조를 짜 도시락 싸들고 가 시냇물을 지키며 등산객들이 알을 가져가거나 터뜨리지 못하게 하고, 등산로 곳곳에 현수막과 200여 개의 도롱뇽 보호 표찰을 달았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잘 알고 함께 보호한다"고 말했다.

도롱뇽마을을 찾은 아이들이 도롱뇽이 알을 낳는 시냇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생태관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관찰창에서 시냇물을 내려다보고 있다. 김용국 기자 young@chosun.com

지난달말 공사가 끝나면서 왕복 800여m의 길지 않은 시냇물 길과 등산로는 도롱뇽 마을로 다시 태어났다. 도롱뇽들에게는 이곳 주소지인 만수3동을 따서 '만삼이' 라는 이름도 붙여주었다.

인천=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

新亞日報 2007년 03월 13일 010면



Well-being 녹지 조성사업 추진

남동, 8억5천만원 투입 쉼터조성등

인천시 남동구는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이 휴양하고 산책하는 실속형 휴주의 도심속 Well-being 녹지를 조성한다. 구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 유지와 푸른도시 창출을 위해 8억5천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업대상으로 쉼터조성(2개소), 걸고싶은 거리조성(1개소), 달팽이동고 나무심기사업(16개소),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1개소) 등 총 20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한다. 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사업성의 극대화를 위해 쉼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의 공감하고 애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인천취재본부

현대일보 2007년 05월 01일 006면

친환경 남동산업단지 조성 추진

인천 남동구는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억여원의 예산으로 남동산업단지(1단지) 내 수벽조성(712㎡) 및 승기천변 차폐녹지대 조성(1,587㎡)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07년에는 남동산업단지 1단지 남동로 잔여구간에 수벽조성(4,000㎡) 및 승기천변 차폐녹지대 조성(15,000㎡) 등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단지역의 가시구역을 수립대로 조성 도로경관 향상 및 환경오염물질, 악취 등을 차단·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는 남동산업단지에 지속적으로 녹지 조성사업을 추진, 공단 근로자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살기 좋은 남동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근식 기자 bgs@hyundailibo.com

우리일보 2007년 09월 05일 목요일 013면 지역종합 21.2 × 9.7 ㎝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 추진

남동구, 10월 시범운영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

남동구는 내년부터 대형폐기물 1만톤에 대한 배출 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인터넷 배출방법과 전자결제가 가능토록 폐기물관리에 관한 구 조례를 개정하고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이달 10일부터 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창을 개설하고 10월 중 4개동(구월4, 간석1, 만수1·6)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인터넷 배출신고 방법은 구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창을 클릭, 배출장소 및 일시 등을 입력한 뒤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신고접수 마친 후에는 인터넷상에서 신고접수증을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뒤 지정된 날짜에 배출하면 되고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의 바코드 번호(인터넷 접수번호)를 동사무소 직이 폐기물에 부착하면 구역자가 가능하다.

구는 또 노인 및 주부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기존 처리방식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그 동안 무분별 부부 등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사 등으로 배출신고를 할 수 없어 무단투기의 원인이 됐던 시제가 일정부분 제거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가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 세수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김영국 기자

경기도민일보 2007년 11월 13일 화요일 010면 지역 15.8 × 14.0 ㎝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성공적 마무리

푸른 남동마을 건설 '박차'

남동구는 도심 속 '생명의 숲 1000만㎡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의 담장을 없애고 개방형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올초부터 시작한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림소방파출소 등 공공기관 4개소와 만수주공 한국아파트 외 민간건물 12개소를 대상으로 총 3억9000여만원의 예산과 민간에서 1억1000여만원을 들여 추진했다.

이로써 3697㎡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매화나무 등 10종 1만여 본을 식재해 부족한 공공성 녹지를 확충했다.

이와 함께 만수6동 1069번지 일원 보행자 도로변 가로녹지에 왕벚나무 등 7종 2203주를 식재하는 '가로녹지정비사업' 을 추진해 한국아파트 및 뉴서울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시 도시녹화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구는 내년에도 고잔동 680번지 일원 '한국가스공사 담장녹화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도시 녹화사업을 통해 푸르고 쾌적한 살기 좋은 남동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연기기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이 완료된 만수6동 한국아파트 모습.

시대일보 2007년 04월 23일 005면

구월3동, "인터넷 청정구역 만들기" 운동 서명식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켜요"

구월3동장(김태성)과 한국환경소년단(이사장 이주섭) 은 19일 인천광역시 아-클린(e-Clean)센터에서 청소년에게 밝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인터넷 청정구역 만들기' 운동을 확대코자 전라는 '서명식' 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구월3번공원-왕도로도 '인터넷 청정구역 만들기'에 참여 참여하여 이웃의 주의인 청소년들이 캐릭터 인터넷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으로 활동 중인 청소년단체사원단과 함께 최선 참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인천 아-클린(e-Clean)센터' 는 청소년들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인천시 위탁기관으로, 개인 컴퓨터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클리어 인터넷 문화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환기자 gkgang@ siddaillbo.co.kr

현대일보 2007년 12월 06일 목요일 007면 인천 15.7 × 12.4 ㎝

승기천변 차폐녹지대 조성공사

남동구, 공해물질 정화·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

남동구가 남동산업단지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승기천변에 차폐녹지대 조성공사를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남동산업단지는 전국 최대의 종소기업 집주단지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가동기업이 방출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대기 중공해가 관지, 악취 등으로 인수지구, 논현지구, 송도경제자유구역 주변의 환경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사진)

이를 위하여 구는 11억 3천여만원(국비 70가원, 시비 17억원, 구비 17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하여 승기천변(남촌동 643번지 일원)3.3㎞에 대기정화수종식지와, 주거지역과 공단의 시계차폐를 위한 배타녹음이어, 매송, 주목, 향나무 등 24개 수종 3935본주를 식재한다.

구는 이번 차폐녹지대 공사가 완료되면 남동산단의 공해물질 정화는 물론, 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하여 도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경식 기자 kpi@hunilbbo.com

서울일보 2007년 11월 27일 화요일 011면 지방 15.6 × 9.0 ㎝

작은 도로는 '주민 직접 청소'

남동구, 2007 설해예방 대책상황실 운영

백은영 기자 / 남동구는 동절기 강설과 도로결빙시 차량통행의 안전과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설해를 대비한 '2007 설해예방 대책' 을 마련하고 설해예방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구청 제설차 9대도, 남동관리 환경소, 월지 지 등 주민센터에 제설반 1개소를 편성하고, 가로쓰레기 수거 및 주민센터 위생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했다는 것. 특히 강설시에는 통행이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길에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의 구는 시민 제설 지역 및 임원단위(관리)인력을 파악하고 제설장비를 점검하는 등 지 등 주민센터에 제설반 1개소를 편성하고, 가로쓰레기 수거 및 주민센터 위생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했다는 것. 특히 강설시에는 통행이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길에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의 구는 시민 제설 지역 및 임원단위(관리)인력을 파악하고 제설장비를 점검하는 등 지난달 10일 제설대책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 제설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구청 제설차 9대도, 남동관리 환경소 및 지 등 주민센터에 제설반 1개소를 편성하고, 가로쓰레기 수거 및 주민센터 위생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했다는 것. 특히 강설시에는 통행이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길에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의 구는 시민 제설 지역 및 임원단위(관리)인력을 파악하고 제설장비를 점검하는 등 지난달 10일 제설대책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 제설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눈이 많이 내린 경우 큰 도로는 구에서 치우고 제설작업을 마치는 주택가 등 골목길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현재가 있다는, 내 집앞 눈은 내가 쓸어서 치우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서대일보 2007년 09월 18일 화요일 005면 인천 15.3 × 19.3 ㎝

남동구,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상반기 평가

주민들, '깨끗해졌다' 73% 응답

남동구가 2007년도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상반기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만수1동 '소래가 살아야 희망찬 만만' 외 1건, 만수3동의 '꽃동네가꾸기 사업' 외 1건, 만수6동 '광수천변 꽃길 가꾸기 사업', 남촌도림동 '주요도로변 꽃씨 파종 및 산책로 등 정비 사업' 외 1건 등 7개 사업이 주수사례로 선정되었다.<사진>

이들이 구는 환경지킴이가 노인분들이 경험 경험할 때 마을로도 인한 임시생 등 건강을 고려해 현재되어가 심은 기간인 8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유지기간을 갖는 것과.

한편 60~64세까지의 노인들은 환경리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가 없어 노인 일자리 확산차원 위해에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연령을 확대 등을 시에 건의하였다.

한편, 구에서는 이번 평가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지역주민(설문응답인원 428명)과 사업참여자(설문응답인원 187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먼저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지도에 대해서는 82.48%(353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환경지킴이 사업 중 쓰레기 줍는장면에 대해서는 73.13%(386명)정도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업지속여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86.92%(372명)가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환경지킴이 사업참여자들은 보수와 관련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자 56.13%(105명)로 평반응도가 만족을 하는 반면, 나무 적다고 응답하는 결무도 39.04%(73명)이나 높게 답변인상 사선이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한편 1일 일급수준은 10도 전일이며, 희망 보수원는 2만원에서 2만3천원선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근무날짜는 81.28%(152명)대해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지속여부희망도 98.4%(184명)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전참여의 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김경환기자 gkgang@ siddaillbo.co.kr

우리일보 2007년 08월 30일 목요일 013면 지역종합 21.0 × 8.7 ㎝

남동구, 재활용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남동구가 재활용 자투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촌동 605~64 등 2필지 4천3백㎡의 기존 부지에 총 22억원을 들여 재활용 선별장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기존 재활용 선별장 시설은 노후화 선별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시설 선진화를 통한 선별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시설 조성으로 쾌으시설 필피의 환경오염을 예방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이번에 건립되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선별 컨베이어, 압축기, 감량기 등 21종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인천시 지정 구 등 유일한 시설이며 일일 선별처리량은 35으로 기존 처리시설의 2.5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기반시설은 바르면내년 시행에 준공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구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견학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수증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영국 기자 ykk@wooribo.com

화요일보 2007년 12월 27일 목요일 007면 지방 15.5 × 13.3 ㎝

남동, 큰성말 공원 새롭게 단장

붉은고개 공원도…오는 30일 준공

인천시 남동구가 큰성말 공원(구월1동 1163번지)과 붉은고개 공원(구월3동 1093번지)을 새롭게 단장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큰성말 공원과 붉은고개 공원은 기존 80~90년대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효과적인 공원기능을 살리지 못했는 실정, 노후 시설물의 잦은 파손등 안전 위협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시정에 제거하기 위하여 공원 재정비를 시행했다.

지난달 29일 착공하여 오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큰성말 공원(1,490㎡)과 붉은고개 공원(1,494㎡)은 구비 3억원을 들여 종합 어린이 놀이터 교체, 포장면 고무칠 포장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면했으며, 배드민턴장과 잔디공장 조성, 보행자 통로 원포함 복 포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했다.

특히, 유아들 전용 놀이시설인 흔들말 등의 설치와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외 등기구를 설치하여 웰빙시대에 걸맞는 시설 확충으로 효율적인 공원기능을 살렸다.

한편, 구는 공원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처로 많은 기쁨을 안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동기자 yks4608@hanmail.net

남동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자율참여 유도

1社 1路 클린관리제 시행

남동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변도로의 청결을 위하여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도입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일 구에 따르면 비지정발생업이 활발한 논현지구를 중심으로 운행차량의 세륜·세차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주변도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에서는 논현지구 비지정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업체 관계자와 지난 2일 구청에서 협의를 갖고 사업장 주변도로 청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참여 업체의 해당관리구역은 ▲송도해안도로 왕복7.7㎞구간 은,(주)대우건설이 ▲논현비지정발지구내 3~23번로 왕복 3.5㎞구간은 삼성물산(주)건설부문이, ▲논고개길 왕복 3.7㎞ 구간은 우리기업(주)이, ▲논현비지정발지구내 3~21번로 왕복 5㎞구간은 (주)한화건설이 구간 주변 도로를 책임지며, 1일 2회이상 노면청소 및 물청소를 실시한게 된다.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도로 노면 청소 장면

한편, 구는 앞으로 비산먼지 다발발생사업장 업체와 자율참여를 유도함에 관련관리제를 해다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환기자 gkgang@ siddaillbo.co.kr

균형잡힌 지역개발

➤➤➤ 자연을 생각하는 세련된 품격도시

현대일보 2007년 02월 23일 005면

인천 남동구청장 사업현장 방문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2006년도 주요 사업중 마무리 대상사업과 2007년도 신규사업 중 사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요 사업현장 8개소, 재해위험시설 4개소 및 남동공단기업체 6개소를 직접 방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함과 더불어 공단기업체를 방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한 후 구청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 / 박근식 기자 bgs@myundaillbo.com

시민일보 2007년 02월 06일 015면

아름다운 건축물사진展 개최

남동구청서 16일까지 열어

윤태진 구청장이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수도권일보

"도시 균형발전·복리증진 최선"

남동구, 민선4기 공약사항·구민 건의사항 보고회

남동구는 20일 구청 은행나무홀에서 '민선4기 공약사항 및 구민 건의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4기 공약사항 8개분야 42건과 지시사항 63건 및 연초 등 방문시 구민들이 요구한 130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실천의지를 점검하는 자리이다.

지난 2006년도에는 전 공직자의 한신적인 노력으로 '영장심사제 종합평가 우수'를 비롯해 총 11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인천소래포구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금년도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박차를 가해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80여 공직자가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가고 있다.

이번 민선4기 중점 추진사항은 민선3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 도시 균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계획한 대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태진 구청장은 보고회 강평을 통해 "구민들과 약속한 민선4기 공약사항 및 구민 건의사항이 각 사업별 실천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는 한 마음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활기찬 구정을 이끌어 주기 바라며, 내년은 우리구가 자치구로 승격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므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일부 자치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의 역량과 행정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호기자 kyh7075@sudokwon.co.kr

부동산 리얼타임 - ①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몇 년 새 인천에서 부동산개발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급부상했다. 사진은 최근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간석초등학교 주변지역 모습. /노승환기자 (blue31@)

재건축단지 활기 … 새판짜기 한창

아파트값 가파른 상승
매매·전세가 천양지차
↕
지분가 몇년새 뜀박질
내집마련 더 어려워져

남동구는 최근 2~3년 새 송도국제도시 다음으로 지역 부동산 그림이 크게 변한 곳이다.

남동구 한 복판인 간석동과 구월동에 1만1천300가구의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500만여㎡에 이르는 논현신도시 개발도 한창이다.

여기에 14곳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이 함께 남동구는 그야말로 지역을 빼면 구 전체가 새롭게 변화해 가고 있는 중이다.

▲가파른 집값 상승

기반여건이 좋은 대단지의 경우에도 3.3㎡당 500만원을 넘는 곳이 드물던 남동구 아파트집값은 2004년 6월 구월동을 재건축단지 분양권 거래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 112.8㎡형의 경우 3.3㎡당 600만원 정도인 2억2천770만원에 분양됐고 현재 1억원 가량 값이 뛰어 3억~3억3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건축 당시 높은 용적률(350%)로 주변지역의 교통대란이 우려돼 한 때 분양자보다 시세가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지만 불과 몇 년 이 다시 올라 3.3㎡당 1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남동구 만수동 금호아파트 172㎡형의 아파트값은 2003년 당시 1억2천550만~1억3천만원이었으나 그동안 1억 7천만원 가량 값이 뛰어 현재 3억500만원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아파트 값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지역 값이 개발지구에서 쏟아는 입맛 "지분가"로 매겨져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분가는 개발예정인 곳의 방대값을 전용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에 대한 각 가구별 향방면적으로 나눈 "지분"으로 매긴 값을 말한는 말이다.

300㎡ 넓이 대지에 전용면적 36㎡인 가구 10집이 살 경우 각 가구의 지분은 30㎡가 되고 집값은 ㎡당 매겨진 값에 가구당 면적을 곱한 수치로 평가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 주변의 평균 지분가는 지난 달을 기점으로 3.3㎡당 1천만원을 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구월동 모래내 시장 일원의 경우 지난해 말 3천만~3천500만원선이던 30㎡ 방짜리가 "분양는 게 값"인 지분가로 값이 매겨지면서 1년만에 6천만~7천만원으로 뛰었다.

39㎡ 방짜리 전세값도 지난해 2천500만원이었으나 지난 달 인근 간석초등학교 주변의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단번에 3천600만원까지 올랐다.

모래내 시장 주변 우무동산 관계자는 "이 주변은 아직 개발계획이 진척되는데도 소형 주택의 집값이 너무 뛰어 상당하여 은 주민들이 발끈을 들리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

/노승환기자 (blue31@)

인천일보 2007년 06월 06일 117면

민선 4기 주요사업 추진 현황 - [5] 남동구

"보은 미래 우린 도시 살기좋은 남동구"의 구정목표로 세움계 출발한 인천 남동구는 등해 초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 친환경의 정정도시 건설,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품격도시 구축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4개 중점사업을 구성 추진방향으로 잡아 남다른 역욕을 나타냈다.

GB 15곳 용도변경 연구용역 계획

지구별 재생사업 순조

소래포구축제 특화전략
평생학습도시 선정목표

등해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인천 행정과 유통의 중심지인 남동구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었을까.

산업개선 경제발전의 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 행복교육을 책임지는 도시, "새바람 도시"를 내걸고 지난해 시정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남촌동 골프장을 건설하면 연간 70~80억원의 세수를 새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래포구-해양생태공원-인천대공원 간 내외부로가 잘 짜여지면 남동구만의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시장개척은 성과와 방향만 지난해를 맞는 도시개발공단의 역자금사업에 대해 분구청 이원이 주는 등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장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장수~시흥-도림 지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도시구획사업도 착착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구는 남동구 구학지구 15곳의 그린벨트에 대해 용도변경 연구용역 요청 등에 손차의 으로 기반시설을 늘려나갈 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진행이 순조치 않을 전망이다.

▲소래포구축제-등해로 기회에를 맞은 소래포구축제는 소래포구일대 새생길는 프로그램이 기대된다.

10월에 열리는 소래포구축제를 위해 구는 소래포구 어촌마을 산업재생, 주변의 소달구지 체험 등 소래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참여형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고 있다.

인천시 지리정보 축제 등 유하게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선정된 소래축제가 등해를 기점으로 정사축제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자연과 교육을 담아-남동구는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일자리 사업"이 일환으로 올해 이어진의 인천의 대표성 확보해 당장을 처음과 나눠상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가시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남동구는 지역특성화 교육기반과 전문인력 집중양성·통합형 교육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목표로 차근차근 정책을 펼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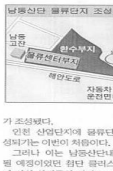
/홍연정기자 (blue31@)

경인일보 2007년 07월 02일 105면

남동산단 2단지 환수부지에

1만5천㎡ 물류단지 조성

산단공, 市와 협의마쳐
이달중 설계용역 착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에 1만5천㎡ 규모의 물류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신라공은 남동산단 2단지 폐기물 처리 유보부지(환수부지) 4만9천264㎡ 중 1만5천147㎡ 가량을 물류단지로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인천시와 협의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는 이를 위해 이달중 시에 부지 원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설계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물류단지 조성에는 모두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권남 창원국가산업단지(2만5천596㎡)와 시흥국가산업단지(1만7천151㎡)에는 작년에 공동 물류단지가 조성됐다.

인천 산업단지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남동산단내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첨단 클러스터 파크가 시와 산단공의 이견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산단공은 당초 남동산단 2단지 환수부지에 R&D지원센터(1만4천876㎡)를 비롯 기업부상연구소·제품전시실 등 첨단 임대단지(1만4천876㎡), 공동물류센터(1만6천529㎡) 등 모두 4만8천264㎡ 규모의 첨단 클러스터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첨단 클러스터 파크 조성사업은 기계와 금속 등 하드웨어 중심의 남동산단이 IT와 BT, 미디어 등 지식기반 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 남동산단에서 연간 8만3천여 t 가량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산단공의 첨단클러스터 파크 조성 계획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산단공 관계자는 "첨단클러스터 파크는 남동산단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나마 건립 예정인 물류단지가 남동산단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들의 물류 비용 경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trees@kyeongin.com

현대일보 2007년 08월 27일 월요일 007면 인천 15.7 × 13.5 ㎝

신도시 기반시설 완벽 지원

남동구 한화지구 공공시설물 추진상황보고회 가져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3일 황의식 남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16명의 관계공무원과 한화측 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한화지구 공공시설물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사업구역에 건립예정인 공공시설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시행자와 각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중 단기적인 관리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황의식 남동구 부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입주시점에 맞춰 모든 기반시설이 도시미관과 입주민 편의를 최우선 고려,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남동문화화관 건립(가칭) ▲소래포구 수변 측체부대 확보 ▲통사무소 신축사업 ▲쓰레기 자동집하장 및 수송관로 관리 ▲도로 및 하수도 설치관리 ▲공원녹지 및 공원 설치관리 ▲환승주차장 설치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해 구와 시행자측간의 이견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쓰레기자동집하장 및 수송관로 운영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자동집하장시설의 운영에 대한 주민부담과 장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에서 기부채납 후 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운영비등을 자치구가 부담하는 문제가 따르는 만큼 수익자, 원치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및 구측에서는 시비 보조방안, 사용자 부담 징수방안, 타시도 사례 활용방안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구청측에서는 "해안공원 등에 체육시설 설치건과 건강증리닉 센터 신축 등 추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사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행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식 기자 bgs@hyundailibo.com

중부일보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 102면 종합 20.8 × 9.7 ㎝

남동구, 노후아파트 보수·유지비 지원

내년부터 도로·하수도·놀이터 등 사업비 최대 50%까지 가능

인천시 남동구가 관내 노후된 아파트 단지의 시설 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부터 아파트 시설 관리 지원의 사업비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기 된다.

1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인천광역시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해 구의회 의결을 통과한 뒤 내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놀이터, 운동시설 등 복리시설 ▶주차시설, 표지판 등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해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한하며, 이중 ▶재건축 추진중이거나 차단기·불라드 등으로 인접단지 통행을 제한한 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한 공사 ▶업대여파트 ▶보조금 지원 시설물이 10년이상 지나지 않은 주택 ▶지원사업의 반환이 제기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구체적 내역을 근거로 한 2개월 이상의 견적서 등을 작성해 구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구는 사전조사와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조례제정을 했거나 시행 중인 타 지자체에서 지역내 은 "에산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역시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김모(37·간석동)씨는 "똑같은 개인소유 재산인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아파트 등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해는 가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4@korea.com

중부일보 2007년 07월 04일 101면

남동구 서창동~주안~서구 오류동 29.2㎞구간

인천지하철 2호선 경전철로 건설

오는 2014년 개통 - 모두 27개 정거장 설치 예정

기종오피리-기재C 왕집지하철도 부근 지하화

인천지하철 2호선이 남동구 서창동에서 학익동 거쳐 서구 경서동 오류동 29.2㎞ 구간에 경전철로 건설된다.

인천시는 지난 2일 남동구 서창동 기재C 왕집지하철도 부근 지하화를 포함 모두 27개 정거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2호선 경전철 건설 사업에 모두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14년 개통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서창동 기재C 왕집지하철도 부근 지하화 구간은 기재C 왕집지하철도 부근 지하화 구간은 기재C 왕집지하철도 부근 지하화 구간은

지역경제 활성화

➤➤➤ 견실한 기업, 풍요로운 지역경제

인천신문 2007년 03월 05일 014면

(주)모젬 등 4곳 '우수기업인' 선정

남동구, 시상식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일 (주)모젬, (주)명성통신, (주)인기티, (주)효성디엔피 등 인천지역내 4개 업체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 표창했다.

구는 중소기업 중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과 신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 서고 있는 우수기업인을 발굴, 표창하고 있다.

구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매월 2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주일기자 jhee@i-today.co.kr

盛湖日報 2007년 01월 24일 007면

막힌 돈줄 시원하게 뚫어준다

남동구, 中企·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지원

인천시 남동구는 23일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급규모는 연 20억 원 규모로 업체당 1억 원까지 보증서 발급을 통해 지원된다. 보증료는 연 1% 내외이며, 대출금리는 연 6.0~7.0%이다.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소유재산에 압류, 경매 및 신용불량 사항이 없어야 하며 무점포 업체, 유흥, 사치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지역경제과 ☎453-2930

김영재 기자 ykim@khalbo.co.kr

현대일보 2007년 02월 28일 003면

기업인 초청 구정설명회

인천시 남동구는 27일 구청 은행나무홀에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을 초청하여 2007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07년도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시전에 파악,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인천/박근식 기자 bgs@hyundaeilbo.com

신바람 일터 만들기 모색

남동구, 지역 노사정 관계자 워크숍

남동구에서는 2월 7일 간석동 소재 로얄호텔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관내 90여개 기업체의 노동조합 위원장 을 비롯한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노사문화정착과 패러다임' 및 '펀(fun)경영과 신바람 일터 만들기' 등의 주제(강의)로 남동구 지역 노사정 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을 통하여 관내 기업체의 노사관계자와 노사업무를 지원하는 구 관계자가 한자리에 함께하여 노사화합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고 향후 노와 사 상호간의 신뢰가 한층 더 돈독해지고 더욱 화합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

김종면 기자 kim8656@yahoo.co.kr

한국일보

인천 남동공단 자치단체 이관 필요

유태진 구청장 "업기중 꼭 이루고 싶다"

유태진 인천 남동구청장은 수도 및 보일러부에서 업기 중 남동구를 스마트 자치경제 스마트 행정구현을 지향한 지역균형 스마트경제 실현에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남동구는 지명도가 높은 소래포구와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이 대표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보니, 지방화시대에 발전 남동구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 구청장은 "현재 소래포구인근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래시장인 포구가 상권을 이루고 있으며, 선착장, 부두, 연개해시장은 남북간 유치, 포구의 기능은 현실적으로 실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은 인천시 업계에 따르면 현재 95만4000m2(25여 만평)의 넓이에 3897개의 공장이 가동중인데 남동공단의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구와 광대천의 흐르는 슬기천 주변에 420m 너비 5~10m의 띠녹을 만든 뒤 나무를 심어 울창한 조성했다고 밝혔다.

한 구청장은 또 "남동공단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것이 당연하고, 남동구에 이관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인천 3선에 출인한 한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현안을 남동구민들과 공유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실기중은 꼭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도윤원 기자

우리일보 2007년 06월 11일 005면

▲ 구월농산물시장 남촌·도림동 일원 조감도.

구월농산물시장 2012년 남촌·도림동 '새둥지'

'농·수·축산' 화훼 등 종합시장 확장 이전

인천시는 최근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을 남촌·도림동 일원으로 이전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KCEB 최종보고회)을 가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94년 1월 개장 이후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농산물 공급 안정기여 등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

그러나 낙후돼 협소해진 장소와 주변지역의 도심화로 인한 교통체증, 쓰레기 악취 등 열악한 여건으로 상시민원이 발생해 도매시장 기능은 원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고객지향적인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오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현대화, 유통시스템 재구축 및 도매시장 기능의 재정립 등 이전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지난 10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착수해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이전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방향 등 가시적인 용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이전대상 후보지로 검토되는 남동구 남촌·도림동 일원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운영 중인 구월 도매시장보다 4배 이상인 8만6천평의 부지에 지상 3만7천평, 지하 4만4천평(주차장 등)등 연면적(연총) 8만1천여평의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계획된다. 주요 시설은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축수산물과 화훼류 직판시설 그리고 물류시설, 판매시설 등 종합 도매시장의 기능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 전문도매시장이었다면 이전되는 도매시장은 농수축산물을 ONE-STOP-SHOPPING(일괄구매)이 가능한 종합 도매시장으로 운영되며, 연간 37만1천톤의 거래물량으로 인천 농산물 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 등 이용자의 구매편의는 물론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 사업비는 3천9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기존 운영중인 도매시장 부지(18,400평)를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여량부지에 이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후에 종전 구월도매시장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협의해 국고와 농인기금(융자)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아울러, 도매시장 지원시장인 물류시설은 단계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착수해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이전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방향 등 가시적인 용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이전대상 후보지로 검토되는 남동구 남촌·도림동 일원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운영 중인 구월 도매시장보다 4배 이상인 8만6천평의 부지에 지상 3만7천평, 지하 4만4천평(주차장 등)등 연면적(연총) 8만1천여평의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계획된다. 주요 시설은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축수산물과 화훼류 직판시설 그리고 물류시설, 판매시설 등 종합 도매시장의 기능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박주용 기자 jkpark@woorilbo.com

연대일보 2007년 04월 02일 006면

국제로타리 3690지구 홀뉴저지주 GSE팀

남동구청 방문 '한국체험'

국제로타리 3690지구(홀뉴저지 김상주)의 미국 뉴저지주 외 7500지구 GSE팀 방한단(팀 초청 단체 31명 29일 방문단이) 남동구청을 방문했다. (사진)

방한 일정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방문단장(Amy Hynes 외 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원) 5일간의 일정으로 가든공사 홍보관을 비롯해 인천시청, 인천대교 홍보관, 대우자동차, 소래포구 등을 견학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및 산업시설 등 한국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제로타리 재단의 연구단 교육프로그램은 사업가 및 전문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40세 이상의 젊은 남녀에게 국제봉사 및 직업 교양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팀원들이 위촉의 상대 지구를 방문해 해외의 전문사업단과 개인적, 직업적인 관계를 맺고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목적을 두며, 나아가 인간관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 박경미 기자 pgmyung@yahoo.com

현대일보 2007년 04월 30일 003면

中 청도시 성양구-인천남동구 40개 업체

원활한 경제교류 위한 간담회

중국 청도시 성양구는 지난 26일 중구 항동 소재 가나다아스트벨에서 윤태진 남동구청장, 이세기 한중친선협회장 및 남동공단 기업 40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간 원활한 경제교류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청도시 성양구 위원회 이장해 서기는 인사말에서 한중친선협회와 남동구청의 성양구의 남구를 위한 다각적인 지지와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성양구는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입지한 곳에, 한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 한국교류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써, 2006년 말까지 이미 1700여개의 한국기업이 입주해 큰 발전을 해왔으나 근래 중국 정책 조정에 따라 각종 규제 등 외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런 환경을 이기고 외국기업들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양국이 투자·예술·경제 등 각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뒀으며, 성양구가 중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외국기업 특히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다각 한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성양구의 현황과 미래의 발전로드맵 등을 설명했다.

원경 / 박준서 기자 bgs@hyundailbo.com

경인일보 2007년 04월 25일 006면

인천 모래내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기공식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조합장·김성철)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새단장을 한다. 모래내시장은 23일 오전 '모래내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과 이원복 국회의원을 비롯 박영배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안병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이상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회장, 윤태진 남동구청장, 강석봉 시의회 의원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모래내시장은 이날 기공식으로 아케이드 설치와 간판 품열화·대대 규격화·노점 구획정비·간선 지중화·고객센터 구축 등의 재래시장 현대사업 공사를 오는 5월에 착공, 9월 추석 전에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이항열기자·trees@kyeongin.com

현대일보 2007년 09월 21일 금요일 007면 인천 15.6 × 11.8 ㎝

물가안정 위해 남동구청장 재래시장 방문

문태진 인천 남동구청장은 20일 오전 구월 모래내 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 등 계절적 성수품 물가안정 협조를 당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구월, 모래내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준서 기자 bgs@hyundailbo.com

서울일보 2007년 10월 23일 화요일 011면 지방 15.6 × 11.9 ㎝

한국문화 체험하며 '즐겁게'

남동구, 외국인 근로자 격려 차원 실시

박은영 기자 / 남동구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키 위해 지난 21일 '2007년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 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체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국, 필리핀, 태국, 몽골, 베트남 등 5개국 출신 31명이 참가해 경복궁 및 남산타워를 방문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소 여기저원의 기회를 맞기 어려웠던 외국인근로자들은 오랜의 휴일 나들이에 한국의 멋소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모처럼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동구에서는 이 날 행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각자의 근무지에서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인·구직의날 행사가 남동구청 지하에서 열저진 가운데 구직 희망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석이조'

인천 남동구 지역 고용안정·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인천 남동구(구청장 문태진)가 지난 5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실시한 '2007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지역내 구직난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됐다.

구청 지하에서 열리진 이날 행사 참여는 지난달 21일까지 구인을 위해 참가 신청을 한 61개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구직을 희망하거나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행사장은 가득 메워 여러 분야의 취업난을 실감케 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희망자에 대한 실업의 취업지원을 통해 지역고용안정과 직업개발실현을 도모함으로써 구인·구직활동에서 동일공 하였다.

특히 구인업체 일부에서 인사담당자가 직접 나와 구직자와 대면면접을 실시하고 이력서 제출과 함께 즉석 면접실장을 갖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희망자에 대한 실업의 취업지원을 통해 지역고용안정과 직업개발실현을 도모함으로써 구인·구직활동에서 동일공 하였다.

특히 구인업체 일부에서 인사담당자가 직접 나와 구직자와 대면면접을 실시하고 이력서 제출과 함께 즉석 면접실장을 갖기도 했다.

이에 구는 총 12개 참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상공 사인 조사해 시장상이 유일한 중소기업들 선정 직접정으로서 시장 개척 실과를 높였다.

특히, 현지시 편포로프를 제조하는 5개업체주는 독보적인 기술로 보유하고 있어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 12,000만불의 상당 성과를 거둬 기업 참은 참가를 가한 기업대주들이 참집을 알기 위해 중심 바이어 관리의 해외지사원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이번 일단지원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뉴욕·시카고 메이사무로 여행정국으로 시장 잠재력이 클지 커지고 있는 캐나다의 토론토 지역이며, 광동만 지역과 방대한 시장이 모로 인해 중국·인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이에 구는 총 12개 참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상공 사인 조사해 시장상이 유일한 중소기업들 선정 직접정으로서 시장 개척 실과를 높였다.

특히, 현지시 편포로프를 제조하는 5개업체주는 독보적인 기술로 보유하고 있어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 12,000만불의 상당 성과를 거둬 기업 참은 참가를 가한 기업대주들이 참집을 알기 위해 중심 바이어 관리의 해외지사원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무상을 위해 오는 8월 DHL서비스 박람회 참가를 계획하는 등 수출지원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일보

기호일보 2007년 12월 18일 화요일 006면 지역 10.3 × 10.1 ㎝

시장개척·기술개발 지원 '팍팍'

남동구, 오는 21일 中企 사업 설명회

인천시 남동구는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5층 대강당에서 '남동구 우수기업지원 성과보고회 및 2008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산업기술지도부문에 (주)서울향료, 해외규격인증 획득 부문에 한효전자, 특허·실용신안 출원 부문에 커티코리아,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부문에 (주)엔에스브이 등 4개 사가 나와 그들만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성과와 경험사례 등을 발표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수출업서류 번역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산업기술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생산품전시장 운영 등에 대한 안내도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공단 총장소(☎ 032-453-516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yjkim@kihoilbo.co.kr

남동구, 해외개척단 전망 밝다

북미 3개 지역 41건 2,900여만불 상담 성과 올려

박은영 기자 / 남동구가 지난 10일부터 1박2일간 뉴욕일간의 뉴욕,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 시카고 북미 3개 지역이 수출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총장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총 41건 (2,900만불 상당)의 상담성과를 이뤄냈다.

시장개척단은 현지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위한 상담장 설에 첫 번째 밤 (뉴욕에선 토론토에서 20건(1,650만불)의 상담성적을 비롯, 뉴욕과 시카고에서 각각 13건(1,170만불), 8건(4,500만불)의 상담성적을 거둬으며 이중 18,300만불 상당의 계약이 예상되어 향후 북미 시대의 수출 전망을 밝게 했다.

금번 시장개척단은 현재 시장개척단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가운데 수출의 결실을 맺기 위해 중심 바이어 관리의 해외지사원사업 지원 등

서울일보

모래내시장 현대화사업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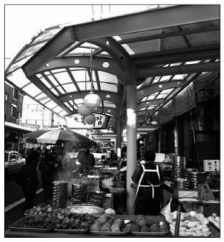
인천시 남동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모래내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식이 20일 열렸다.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이번 사업은 모래내시장길 등 420m를 연장했으며 도로 양측에 폭 5m의 아케이드를 각각 설치했고, 전기·통신·소방시설과 도로포장 및 간판 정비 등이 시행됐다.

이날 윤태진 구청장은 "전국의 재래시장들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남동구는 희망적이다"며 "관내 모든 재래시장을 명품시장으로 바꿔 활력있는 지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주민과 상인의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남동문화원의 문화예술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양규원기자/ykw@joongboo.com



새단장을 마친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을 상인들이 활기차게 맞이하고 있다.

수준높은 문화예술

➤➤➤ 밝고 풍요로운 삶의 향유, 웰빙도시 남동

수도권일보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007면 인천 19.5 × 14.6 ㎝

가자! 소래포구 축제 현장 속으로

2007인분 어죽시식회, 전어거리 등 풍성한 이벤트 행사 열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소래포구 축제가 어부들의 출항을 재연한 개막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가을 하늘을 축제의 열기로 채웠다.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올해의 축제는 S(Sam)-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가기위한 시작의 소래, O(Open)-모든 관광객과 함께하는 열린 소래, R(Reform)-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의 소래, A(Active)-쉼 없이 전진하는 역동의 소래, E(Energy)-언제나 힘이 넘치는 활력의 소래"가 캐치프레이다.

첫째날인 10일, 소래축제 개최기념으로 2007인분 어죽시식회가 열려 축제참여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개막식킹 행사로 타악공연 및 외국인 무희들로 구성된 화려한 댄스공연이 이루어졌다.

식후 행사로 지상쇼, 노사연의 MBC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공개방송에는 태진아, 최진희, 조항조, LPG등 정상급 인기가수 출연으로 축제는 절정에 달했으며, 행사장을 가득메운 관람객의 함성이 소래포구를 뒤흔들었다.

이후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어져 가을 밤하늘에 소래축제의 꽃을 피웠다.

둘째날인 11일에는 인천여중의 리틀밴드,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그룹사운드 OCTAVE의 공연, 송막여중 졸업기 등 총 7개팀의 영 피스밴밴 공연과 만수5동 부부댄스 동호회의 13개팀이 참가한 남동구 생활체조 발표회, 북한여출단 관연의 공연이 진행되어 이날 열린 많음이 낙시대회에는 많은 인파이 몰려 낙시꾼들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소래 앞바다에 울려 퍼졌다.

셋째날인 12일에는 메인무대에서 남동화합 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와 11명이 출연하는 소래포구 아름마 선발대회가 열린다.

이번 소래포구 아름마 선발대회는 마인 대회성 홍보모우미 선발는탄에 대하여 지역 대표축제의 홍보사절단 선발이라는 대회취지를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모델를 삼수 있는 실사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1차 예선을 거쳐 올라온 11명의 참가자들의 열띤 노래자랑과, 참여행사로 뽀빠이 선발대회가 열린다.

폐막식 축하공연으로 경기방송의 관광터칠라이 예비타임 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되며, 이날 나팔라페밀리, 브라운아이즈걸즈, 일락, 팝핀현준, VOS, 장혜진,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게 된다.

/김용호 기자 kyh7075@sudokwan.co.kr

중부일보 2007년 08월 21일 화요일 102면 종합 9.9 × 11.9 ㎝

SK와이번스 '소래포구 축제' 홍보 나섰다

25일 홈경기에 남동구민 무료입장·이벤트

인천을 연고지역으로 하고 있는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이 지역 대표 향토 축제인 소래포구축제 홍보를 위해 오는 25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LG와의 홈경기에 남동구민을 초청한다.

SK와이번스에 따르면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인천의 대표적 향토 축제인 소래포구축제를 인천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준비된 '남동구민의 날' 행사는 남동구 구민이면 1부측 1층 출입구(1번 게이트)에서 신분증 확인을 거쳐 내야 일반석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SK와이번스는 무료 입장뿐 아니라 불꽃놀이용 스마클타와 주차번호 일괄판도 제공 한다.

경기에 앞서 오후3시30분부터 20분간 와이번스팬드에서 점근무, 나주환 선수의 팬 사인회를 갖고, 이날 경기에 윤태진 남동구청장이 시구와 함께 1회말 1일 아나운서로 SK와이번스 선수 소개 등 깜짝 이벤트도 실시한다.

또한 5회말 종료 후 클리닝타임 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7회 인천 소래포구 축제' 홍보 사절단이 소래포구축제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그라운드를 한바퀴 돌 예정이다.

김종화기자/jkkim@joongboo.com

중부일보 2007년 10월 11일 목요일 11면 사회등 20.6 × 15.7 ㎝

인천에 '인천축제'가 없다

문화관광축제 '소래포구'뿐

축제관광 외지인수 통계조차 없는 실정

전국돌며 적극 홍보 대표축제 육성시급

<사보>인천시지역을 대표할 인천 축제가 없다. 이는 지역축제에 외지인(타국인 포함)을 유치하려는 관할 기관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다.

▶본보 10월 10일자 1면보도

문화관광부는 우수지역축제를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95년부터 해마다 광역정부의 관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원래에는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경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7개가 선정, 2억씩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또 우수축제 9개(1억씩 지원), 유망축제 17개(5천만씩 지원), 예비축제 19개(예산지원 없음) 등 모두 52개가 선정됐다.

그러나 인천시의 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는 소래포구축제가 유일하여 이마저도 올해 선정되면 문제다. 더욱이 소래포구축제는 문화관광축제 등 가장 낮은 단계인 예비 축제다.

전국 1천여개 지역축제의 거듭 경쟁력 있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그라운드를 한바퀴 돌 예정이다.

반면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10일간 아산시 월랑 해상공원서 일대대서 마산가고자 국외축제를 개최한다.

반면 인천시는 이를 위해 전담팀을 편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등 전국을 돌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산가고자 국외축제는 2004년 150만명, 2005년 170만명, 지난해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했고 올해는 500만명이 활동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해인 홍보 활동이 지역 축제를 찾는 관광객 유치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52개의 지역 축제 중 31개가 외지인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강원도 양양 송이축제 등 8개는 외지인 비율이 90%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소래포구축제 등 인천지역축제를 찾는 외지인 비율은 참게도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인천의 예산은 인천도로 축제를 기리키는데 한수이고 관리지 원으로 홍보 활동에 나서는 것이 전부라서 적극적인 외지인 유치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하공전 관광과 김태수 교수는 "지역축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이 부족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야 인천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식기자 ssellonne@ksm

중부일보 2007년 10월 20일 금요일 11면 지방 25.0 × 17.8 ㎝

"다시 찾고픈 소래포구, 이번엔 꼭…"

■ 남동구, 종합정비계획

내년부터 정포일대-주차장 운영 뚫서 맞아

통행로 넓히고 불법주차 단속 강화하기로

인천의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소래포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남동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소래포구는 인천도심에서 가까운 데다 서울에서도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 300여 개 정도가 밀집 어시장이는 사계절 관광지 명단이 꼽히기 때문에 해마다 전국으로 홍보, 우물에서 숭늉 찾는 지방과 달리 섬소래 바가지 상점 등은 관광객들상을 위주로 해오었다.

그동안 구는 소래포구에 대한 정비자 원을 수차례 실시했지만 대부분 일회성 정비에 그쳐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3개 관광지 정비를 위해 '관광지의 입고 회을 수도 있는 소래포구를 인천기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웠다.

우선 현재 상인들이 임대한 정포의 임대 계약을 내년부터는 구가 직접 상인들과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는 상인들 입대 계약을 한 상인의 사정도 내년 3월부터 구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주차공간을 늘리는 정비 사업 추진자 이용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여사장 내 정포의 원산지를 사 위인명하여 대한 안속을 구부분지 조사하고 보상 방안이다.

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상인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많는 부분이 많아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며 "시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나쁜에는 소래포구의 환경을 개기하으로 바람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한기자 wonwoo@kyo.com

2007년 10월 08일 월요일 005면 인천 20.5 × 21.2 ㎝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정비계획 보고회 개최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 만든다

김종화기자 jjkim@kyo.com

현대일보 2007년 09월 11일 화요일 007면 인천 10.3 × 9.9 ㎝

남동구 논현고잔동 폐청사

남동문화원으로 활용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잔동 구(舊)청사(고잔동 212-7)가 남동문화원 사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진)

10월 구에 따르면 문화홍보실의 '남동문화원 및 문화예술회 운영방안', 보건소의 '남동구 건강증진센터 운영방안', 논현고잔동의 '문화원 및 건강증진센터 병행 활용방안' 등 3건이 접수돼 지난달 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남동문화원' 시설로 활용하기로 협의했다는 것. 현재 남동문화원은 재정관인회 청사 사무실 76㎡을 무상임대 방안을 오는 2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및 하업공간 협소로 문화사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결정배경이다.

이번 결정으로 남동문화원은 구(舊)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1,2층은 사무실 및 문화교실로, 3층은 남동어학원 전인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9월중 청사 활용 변경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청사정비 및 보수공사를 거쳐 12월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박금식 기자 bgs@myundailbo.com

기호일보 2007년 08월 01일 006면

'소래역사' 등록문화재 지정되면 역사박물관 건립

소래~논현포대 일대 관광벨트 추진

인천시 남동구는 옛해저가는 소래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소래역사(驛舍)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논현2택지 개발지구 내 옛 반월읍 부지에 3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990㎡ 지상 3층 규모의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단, 이 계획은 대한주택공사와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구는 주요 측과 협의를 거쳐 원활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역사박물관은 이와 마찬가지로 수인선 협력위원회와 협의를거, 옛 여선 들이 전시되고, 1층에는 관리사무소, 소회 옛고속 사진전시관, 수인선 협력위원 전시관, 여관 전시관이, 2층에는 놀래 생활사 전시관, 희귀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가 소래역사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문화재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여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와 인해해 인근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소래포구~소래철교~장도포대지~논현포대의 박물관을 연계해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재 기자 ykim@khilbo.co.kr

인천일보 2007년 05월 31일 017면

남동문화회관 건설 추진

구-한화건설, 세부사항 협의

소래·논현 개발지구 내 조성

이르면 2009년에 남동구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남동문화회관(가칭)이 들어설 전망이다.

남동구청은 현재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을 맡아 하고 있는 한화건설과 남동문화회관의 구체적인 규모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2008년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남동구가 한화건설 측에 제시한 문화회관 건립안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연장·전시실·문화교실 기능을 갖춘 일반 문예회관으로, 부지면적은 9천430㎡에 달한다.

구는 4년 전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리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패한 데다, 논현동 주택공사 논현사업단이 오는 2008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논현동 주택공사 부지 내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 해 문화예술회관으로 쓰려고 했으나 활용성이 떨어져 건물 철거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 과정에서 남동구 내 일부 문화인들은 교회부지 철거에 반대하며, 3년 전 구청에서 약속한 대로 교회 건물을 문화회관으로 고쳐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본보 5월22일자 18면 참고>

구 관계자는 "70여 상당의 교회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아깝지만 현재 건물이 무리가 상태이고, 주택공사도 공사를 시작할 당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교회부지는 소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송상범기자(sbsong@icubshong

현대일보 2007년 07월 23일 008면

인천 남동구 여성합창단 大賞 수상

탐라전국합창축제 경연대회

인천 남동구여성합창단(지휘자 김귀희)이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모두 12개팀이 출가한 이날 합창경연대회에서 남동구여성합창단은 지정곡으로 비바체(홍세영 곡)와 자유곡으로 세타령(허광재 곡)을 불러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창단 7년째를 맞이하는 남동구 여성합창단은 2003년 제8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 2004년 제9회 대통령상 전국합창대회 대상, 2006년 제3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 / 박근식 기자 bgs@hyundailbo.com

인천신문 2007년 02월 06일 004면

"옛 소래역사 보존하자"

네티즌 총심 연내 철거 반대 댓글 '봇물'

네티즌 사이에서 옛 수인선 소래역사를 보존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논현역지 개발에 따라, 늦어도 올해안에는 소래역사가 철거될 전망이다.

인터넷 동호회 '옛사랑'(www.ilovenet.com) 회원 임모씨는 옛 수인선 노선을 답사하고 나서 "작은 소래역을 볼 보도 없이 안녕은 또 하다. 진정한 당고다니 남겨진채 주변은 공부 개발됐다"며 철거 여기에 높은 소래역사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온고지신을 모르나, 옛것이 아니들에 없어지는건가, 더 이상 옛 정취 살기는 싫다"고 댓글을 달고 소래역사 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남동구청 홈페이지 정책포론방에도 네티즌 의견서는 글을 남겨 "소래역 철거 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과 달리, 논현역지 조성공사

인하대박물관·인쇄연도 보존 가치 높게 평가

에 포함된 소래역사는 올해 안에 철거될 전망이다.

논현역지 개발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는 "옛 소래역사는 논현역지의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폭 15m짜리 도로 안 복판에 놓여있는데다, 공원조성된 예쁜부지에도 걸쳐 있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소래역사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변 인천본부는 올해 안에 논현역지 조성공사에 대한 1차 준공을 할 계획이다.

한편 소래역사 보존에 관한 의견은 그동안 갈등 양상 보기도 했다.

인하대박물관은 지난 2005년 8월 옛 협도한이 이번 '수인-인천간 복선전철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수인선 역사 중한 곳 중

보전된 채 남겨진 논현역지 조성공사 내 소래역사 전경.

도는 원자료를 보존하고, 그 안에 수인선의 역사를 단아 교육과 추억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소래역내 시설(역무실·시계 등 수인선 관련시설) 등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인하대박물관 전수진 연구원은 "수인선의 공고 있는 옛 소래역사 역사는 당장 문제 소래역사는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도 지난 2002년 4월 '남동구 21세기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소래포구의 관광전략 보완으로 "소래역사는 소래포구와 함께 구수인선 역사문화자원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공간"으로 평가하고, 소래역사와 역무원실을 활용한 소규모의 생활사박물관 건립 ▲소래포구~구 소래역사 구간 역무원실 복원 및 시설물 설치 ▲관광열차 운영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소래역사는 1937년 수인선 개통 당시, 설치됐다. 3층 규모에 대합실과 사무실을 갖췄다.

수인선 건설사, 하얼빈역을 참조 나르기 위해 소래포구로 발달한 점으로 판단된다. 소래역 또한 인천역 등과 같이 일정한 모기와 양식을 띠고 있다. 1994년 9월1일 폐선된 수인선 인천구간 중 현재 남아있는 역사는 송도역과 소래역 두 곳 뿐이다. 소래역사는 2년 뒤 종합(소래) 지고지환 등지고 있다. 김후희기자(khee@ceo.co.kr

경인일보 2007년 06월 05월 i17면

제6회 남동구민 서예백일장

130여명 참가… "내가 명필"

인천 남동구와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이 개최한 '제6회 구민 서예백일장'이 지난 2일 만수동 문일여고 내 지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관내 주민과 초·중·고등학생 등 130여명이 참가했다. 구는 이날 출품된 서예작품들을 초등부 한글·한문,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당일 심사했으며 오는 15일 구청 홈페이지(www.namdong.go.kr)를 통해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상훈기자·hoon@kyeongin.com

서울일보 2007년 12월 18일 화요일 011면 지방 10.3 × 12.6 ㎝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21일~26일까지 구의회 본관 1층서

박은영 기자 / 남동구 문화예술회(회장 서복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랑나누기' 란 주제로 남동구의회 본관 1층에서 제18회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남동구 문화예술회 미술분과에서 고창의 붓(박영동)외 회화 35점을, 서예분과에서 '담은 곡이부이진다(김미옥)' 외 서예 25점을, 문학분과에서 '벽주기 심이 등 7점의 시와 수필 15점 등 모두 78점이 전시된다.

서복례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로 시민 정서함양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 일부는 연말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이게 된다.

인천일보 2007년 09월 07일 금요일 17면 베트로 25.5 x 12.7 ㎝

"아시안게임 선수촌 유치 우리마을이 최적"

서창지구 주민 또 한번 뭉쳤다

온라인통해 다양한 의견 제시 - 시에 희망서

온라인을 통해 인천시 남동구 서창지구 주민들이 아시안 게임 선수촌 유치를 적극적이 요청한 실정이다.

인천시 남동구 서창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 '인천서창단합 협의회'(이하 서창단합)은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한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오다 이달초 시에 아시안게임 선수촌 서창지구 유치를 희망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서창단합은 지난 6월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에 서창역 신설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한 데 이어 이번 인천광역시 시장에 정책 현실로 지역을 입고 있다.

서창단합은 이번 제제를 비롯하여 이번 아시안게임 선수촌 유치에 목적 나서, 이를 통합힘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서창동이 인천광역인 연륜 있는 행정동정동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손님들에게 대한과 경제로 씨동인 인천의 모습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천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창동이 서울·경기도·시흥을 잇는 교통 요지여,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역이 있는 점과 상업지역 이라는 점은 서창동이 이번 아시안 게임 유치에 있어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서창지구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개발계획 계획을 보아 오는 2009년 서창광역교통망 서창역공사 오는 2009년 예정되고 한국에정도 선수촌 유치에 경쟁적인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선수촌이 서창지구에 들어올 경우 우월 여성에 주민들은 어떤 인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소음에 대한 불편 감수는 물론 자원봉사자들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서창단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동·자연환경·사업장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유치 다양성을 제안했고 시에 선수촌 유치를 건의했는 주민 140명의 서명서 서명을 첨부해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창지구 주민들의 선수촌 유치 제안은 시가 유치를 검토하는 이유로 꼽았다.

이가에 선수촌이 서창지구에 들어올 경우 우월 여성에 주민들은 어떤 인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소음에 대한 불편 감수는 물론 자원봉사자들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서창단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동·자연환경·사업장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유치 다양성을 제안했고 시에 선수촌 유치를 건의했는 주민 140명의 서명서 서명을 첨부해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창지구 주민들의 선수촌 유치 제안은 시가 유치를 검토하는 내용까지 첨부했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구민의 평생 건강지킴이

중부일보 2007년 03월 13일 102면

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남동구, 271개소 우선대상 실시

인천시 남동구는 관내 총 380개소의 집단급식소 중 일차적으로 기업체 급식소 271개소를 대상으로 12일부터 5월31일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와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관리 여부, 작업장내 수세시설 및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여부 등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지도점검에서는 시 식중독 예방 교육용 지료 배부와 함께 위생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며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해 식중독 예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업체 내 위생관리체계 입지를 자정해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종화기자/pkim@joongboo.com

현대일보 2007년 09월 13일 목요일 006면 인천 15.6 x 7.3 ㎝

연락골 추어마을 홍보판 제막식

남동구, 1,300만원 투입 음식문화개선 도모

인천시 남동구가 특색있는 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해 12일 운연동 쉼터공원(운연동 20번지 일원)앞에서 연락골 추어마을 홍보판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진흥기금 500만원, 추어마을번영회회장 최근예에서 800만원을 부담해 총 1,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다는 것.

이날 행사에는 윤태진 남동구청장, 윤창렬 남동구의회의장 등 지역인사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식행사도 이루어졌다.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이 마을의 훈훈한 정을 모아 특색있는 음식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음식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추어마을 상인번영회에서는 음식문화 개선과 홍보를 위해 추어마을 유니폼을 단체로 제작, 착용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사은행사기간으로 정해 추어을을 찾는 모든 손님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락골 추어마을은 자연부락 천곡단위 마을로서 현재 14개업소가 운영중이며 매는는 추어탕 민물매뉴로만 이루어졌다.

/ 박근식 기자 bgs@hyundailbo.com

[부천일보]

위생취약 식품접객업소 "꼼짝마"

남동구, 8일까지 장례식장 등 63개소 위생상태 검사

남동구가 위생 수준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인 장례식장 및 극장 등 식품접객업소 63개소에 대해 위생점검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3개반 6명으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6월 4일부터 8일까지 이용객이 집중되는 장례식장 및 극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 중인 물수건 등의 위생용품 수거해 검사에 만전을 기한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의 사용 여부 ▲식품, 식자재 보관 및 조리실 청결관리 여부 ▲조리장 내 주방용 식기류 소독 여부 ▲종사자 위생모 착용 등 청결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 중인 물수건 등의 위생용품을 수거해 검사한기로 했다.

또한 점검 시 업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병행해 식중독 예방 요령 및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취급 방법 등에 대해서 중점 교육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점검 기간동안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등에 공개하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식중독의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해 식중독 예방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환기자 kokhan@bucheonilbo.co.kr

현대일보 2007년 08월 14일 006면

"건강한 치아 위한 잇솔질은 이렇게…"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잇솔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잇솔질 교실은 ▲'올바른 양치질 하려면' CD 교육 ▲ 잇솔질의 발생과 예방법 ▲ 올바른 잇솔질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을 실습하게 되며, 교육이 끝난 후에는 보건소 치과에서 치아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8월 9일부터 오는 17일(목·금 오후 3시)까지 운영되는 잇솔질 교실은 남동구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에서 이루어지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근식 기자 bgs@hyundailbo.com

인천신문 2007년 09월 28일 금요일 006면 정치/행정 9.7 x 11.9 ㎝

담배 연기 사라진 사업장

남동구보건소 이동금연클리닉 효과 크네

'우리 공장에는 담배 연기가 없어요'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이동금연클리닉 상담사업이 지역사업장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27일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주간 남동산단에 있는 '스프레이시스템 컴퍼니코리아(유)'의 이용수 사장을 비롯한 흡연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 8개월이 지난 현재 흡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 직원이 모두 금연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장님 역시 흡연자였으나 금연에 동참, 담배연기 없는 사업장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시작서를 작성하고 30만 원의 금연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 보건소는 현재 남동산단 등 사업장 30개소(500명)와 시교육청(15명), 인천시청(25명)을 대상을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간석3동사무소(매주 월, 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매주 수), 증앙길병원(매주 목, 금)에 상설이동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송효환기자 jyhc@i-today.co.kr

2007년 09월 13일 목요일 014면 지방 10.4 x 15.8 ㎝

모자보건 정책 배우러 왔어요

중국 길림성 계획생육협회, 남동구보건소 방문

북은영 기자 / 중국 길림성 계획생육협회 방문단(단장 소선부) 10명이 남동구보건소의 모자보건 정책과 주소시설을 벤치마킹 위해 지난 11일 남동구 보건소를 방문했다.

12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중국 길림성 계획생육협회 간의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학술세미나에 따른 연구기간 중 남동구 보건소를 방문했다는 것.

이날 보건소에서는 방문단을 맞이하여 남동구의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정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브리핑을 하고, 양국의 지방 보건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의 출산률저 정책과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모자보건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2007년 10월 26일 금요일 108면 사람들 10.2 x 14.6 ㎝

남동구가 25일 개최한 '제6회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 품평회'에 참여한 300여명의 주민들이 음식나눔행사와 무대공연 등을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남동구, 맛으로 소문난 집요리 품평회 가져

인천 남동구가 25일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 품평회"를 열고 남동구의 맛과 멋을 뽐내는 자리를 가졌다.

구청 제육관장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날 품평회는 사랑한 동포 2세들을 비롯해 윤태진 구청장 등 내·외빈, 지역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음식나눔행사"와 함께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총 25개 업소가 참가한 이번 품평회에서는 모진 15개소와 7품목의 우수작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업소에 대해선 부상과 상패가 주어졌다.

이날 품평회에서 윤태진 구청장은 "오늘 대회가 음식문화 개선과 발전의 밑거름이 돼 인천의 대표 음식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규원기자/ykw@joongboo.com

인천일보 2007년 10월 29일 월요일 007면 사람들 16.0 x 19.0 ㎝

남동구의 초청으로 전 나들이에 나선 사랑린 동포들이 음식품평회에서 마련된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즐겨보며 행복한 남동구청장 보소를 나누고 있다.

음식나눔행사에 사할린동포 초청

남동구, 무료시식·문화공연 가져

역시 영주 귀향한 사할린 동포 180여명이 인천 남동구구청을 찾아 진기한 구경한 "제6회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경연 및 음식 나눔" 행사에 초청해 참석들이 즐에 나섰다.

사할린 동포들은 30일 남동구청 제육관강에서 열린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경연대회 음식나눔" 행사에서 갖가지 종상한 음식을 맛보면서 무료시식과 함께 문화공연을 즐겼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때 강제로 징용에 시달리에 거주하다 전에 이상 동포들은 광복에 이에 지난 1일 영주 귀향에 현재 남동구 논현동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날 구의 초청으로 우국주 참나들이에 나선 것.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윤태진 구청장은 첫 나들이에 나선 동포들의 손을 하나 하나 잡으면서 위로했다.

특히 사할린 동포들의 귀향 첫날부터 낯선 여정을 보여보던 문구청장은 이들의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을 진정어린 인간한 생활을 당부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동포는 "고국하늘 아래에서 살고있는 것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청해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받으니 너무 감사하다"며 "고향에 나와서 손도 잡아주고 건강까지 염려해주니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날 모이 행렬하는 사인 실문조사를 통해 주된 방문 음식을 경개인소가 향기해 업소의 위생기반과 서비스 수준, 행정에서 만족이진 음료의 시식참수를 실시키면으로 맛으로 소문난 집 15개를 선정하고 우수업소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출품식단 전시된 바 시식종목보면, 건강 영양 상담도 함께 진행해 이곳을 찾은 내방객들에게 보거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임광수·송동욱 기자 sol@siminilbo.co.kr

시민일보 2007년 05월 21일 015면

출산가정 찾아가 가사일 돕는다

남동구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실시

남동구(구청장 윤태진) 보건소가 산모와 신생아 정신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0일 구 보건소에 따르면 연중 실시하는 이번 도우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출산가정으로 소득 판별기준은 건강보험 납부금액이다.

지정기제가 중 지원액 배기량 250cc 이상(경카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되며 장애아, 의료기처상힘들자, 한 부모가정 등 정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식사준비, 목욕, 청소, 세탁 등 가사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신생아, 건강보험가 등,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의료급여 및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내용의 신생아에 출산한후 60일부터 퇴원해야 일주일 전까지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여 관련 서비스 기간은 2주(13일) 범위(상황에는 3주)내에 지원된다.

구 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해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 정신관리 및 안전 도모에 만전을 다할 수 있는 방침이다.

문의 (433-5102)

박상도 기자
psd@smilbo.co.kr

현대일보 2007년 04월 20일 006면

남동구, 암예방 강연회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18일 구월동 소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생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예방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로 이해를 도와 암 예방과 조기 검진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암 강연회는 가천의대 길병원 홍부외과 전양빈 교수를 초빙, 한국인의 암발생 현황 등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됐다.

/ 박근식 기자 bgs@hyundaeilbo.com

시대일보 2007년 05월 14일 005면

남동구, 2007실버 건강교실 운영

남동구 보건소(소장 곽광희)에서는 노년기 원만 실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은 인구의 증년을 확대시키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버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건강증진 담당공무원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매주 월,수,금 14:00 ~ 15:00사이 실시되는 건강교실은 1대 생활습관지도자 국민체육센터의 지도로 사단법인 [illegible]

新亞日報 2007년 05월 30일 010면

남동보건소, 미숙아 의료비 연중 지원

선천성 이상아도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일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자녀이며,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식도 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외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건소장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정의 자녀이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지원한다.

또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에 따라 5백만원에서 1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의료기관 또는 부모 등이 신고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중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미숙아의 경우 미숙아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입금계좌 통장,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이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도 구비서류는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모자보건팀(☎453-5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용배기자
ybim@shinailbo.co.kr

우리일보 2007년 04월 11일 017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남동구, 종합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남동구 보건소는 의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소라는 개념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제공 방식은 돈벌료 지정된 담당간호사가 실명으로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 가족별로 건강수준 및 습관 건강문제를 조사하고 확인된 건강문제 및 거동상태 등을 파악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구는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투자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1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해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영·유아, 모성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와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의료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주요서비스 내용을 보면 △취약가족의 건강관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만성질환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말기 암 환자의 증상관리와 암예방 관리 △일신고 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치매,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낙상 등 여와노인의 건강문제 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편 구 보건소는 이번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실시로 고령사회 도래 및 만성 질환자 증가에 대응하고 보건의료이용 형평성을 제고해 건강증진 및 질병 관리 등 폭넓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국 기자
ykk@woorilbo.com

금연 위해 아침부터 북새통

남동구보건소, 금연 등록인원 500여명

남동구보건소(소장 곽광희)는 지난 1월2일부터 보건소 2층에서 금연클리닉안내실을 운영한 결과 현재 금연 등록인원이 500여 명으로 새해부터 금연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 금연을 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최근 메스컴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암발생률 1위가 폐암으로 흡연으로 인한 발생률이 높다는 국립암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라 흡연문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고 있어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로 금연을 원하는 주민을 찾아내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줄 것"이라며 "지역주민 중 금연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남동구보건소를 방문해 금연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수도일보 오풍운 기자

아시아일보, 현대일보, 수도일보(3개사)

현대일보 2007년 07월 31일 007면

금연성공 위한 기체조교실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는 지난 26일 금연등록자를 대상으로 금단현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체조 전문강사(박화실)를 초청해 기체조 교실을 열었다. 30일 보건소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기체조 교실에는 금연등록자 60명이 참석해 금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한편, 기체조교실에 참가한 주민 박모씨(금연6주 성공 유지자)는 "보건소에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기체조까지 가르쳐줘 이번에는 반드시 금연에 성공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 박근식 기자 bgs@hyundailbo.com

현대일보 2007년 10월 18일 목요일 006면 인천 10.5 × 10.7 ㎠

건강식단 전시회 '뜨거운 관심'

남동구보건소, 지역주민 식생활개선 도모

인천 남동구보건소는 17일 보건소 3층에서 지역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건강식단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

18일까지 운영하는 이날 행사에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건강식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오전 10시 20분 박희옥 교수(가천의과대학 식품영양학과)의 '건강한 식생활'이란 주제로 건강좌가 열렸으며, 관람객에게는 '남동구 보건소가 추천하는 맛있는 영양식' 책자와 '우리가족 건강리듬 8박자 스트레칭 포스터'를 나누어 주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즉석

으로 영양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식이상담과 체성분 측정상담이 이루어져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태진 구청장은 "이번 건강식단 전시회가 여러분들의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식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근식 기자 bgs@hyundailbo.com

나눔의 생활복지

➤➤➤ 나눔과 섬김의 삶, 따뜻한 선진 남동

우리일보 2007년 04월 25일 017면

남동구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행사

외암 민속마을서 즐거운 야외 나들이

남동구는 24일 송남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외암 민속마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즐거운 야외 나들이 체험행사를 가졌다.

구에 따르면 신체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동반 야외 나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여유 및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이번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행사를 실시했다는 것.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로 저소득 장애인 33명, 가족 및 자원봉사자 14명이 함께 동행 했으며 외암민속마을, 현충사 등을 둘러보면서 전통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해 비장애인과 공감하며 유대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구 관계자는 "짧은 일정이지만 서로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국 기자

ykk@woorilibo.com

국제일보 2007년 09월 19일 수요일 011면 지방 14.6 x 9.0 ㎠

남동구, 이웃돕기 온정의 손길 잇따라

만수1동 발전협·구월4동 사랑나눔회·삼성하우징(주) 등

박은영 기자 / 남동구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훈훈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만수5동 발전협의회(회장 권승용)는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50명에게 사랑의 쌀(백미10kg)을, 구월4동 사랑나눔회(회장 서상도)에서는 쌀(백미 10kg) 70포와 냄비 70개를, 만수6동 김선웅 주민자치위원장이 50만원, 주민자치위원들이 50만원을 마련하여 동사무소에 기탁했다.

이 밖에도 지난 12일 삼성하우징(주)에서 1,50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과 쌀교환권을, 13일 푸른세상인쇄에서 쌀 50포(20kg)을, 14일 만수5동 방위지원협의회에서 30만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기탁했다.

시민일보 2007년 05월 09일 015면

만수 3~5동 노인 130명에 무료로 안경 만들어 전달

남동구, 어버이날 맞아

만수5동사무소 다목적홀에서 지역내 130명의 노인들에게 안경을 전달하고 있다.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사회에 헌신 봉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력을 검사해주고 무료로 안경을 제작해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안경 전달식은 만수5동사무소 다목적홀에서 신태용 안경점(대표 신재철)의 지원을 받아 만수3, 4, 5동 노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구는 각 동별로 대상자 총 1200여명을 추천받아 시력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추천된 대상자 전원에게 안경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이날 올해로 4회째 안경 지원을 해오고 있는 신체 장애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회분위기를 함께 조성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psd@siminilbo.co.kr

기호일보 2007년 06월 08일 017면

"장애인과 하나 되어"

남동구, 아프리카 문화원 나들이

인천 남동구는 최근 포천 소재 아프리카 문화원을 견학하는 즐거운 가족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들이는 저소득 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총 50명이 아프리카 조각상 등을 관람하며 아프리카의 문화체험을 통해 비장애인과 공감하며 유대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문화체험의 동반자는 장애인가족, 만수6동 성당 빈센시오회 및 민들레 봉사단원 중에서 사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짧은 일정이지만 서로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ykim@khoilbo.co.kr

현대일보 03월 22일 005면

1단체1경로당 점심 지어드리기

인천 남동구 만수3동

인천 남동구 만수3동(동장 문경신)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점심식사 문제 해결을 위해 "1단체 1경로당 점심 지어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우선 만수3동 경로당(회장 이규열)을 시범적으로 매일 1개 단체가 순번제로 2명씩 참여해 15~20여 명의 노인들의 점심식사를 손수 지어드린다는 행사로 참여단체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세마을협의회·부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재향군인회 등 총 8개 단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봉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명이 참여하여 218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 및 설거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인천 / 박근식 기자 bgs@hyundailibo.com

현대일보 2007년 02월 15일 007면

저소득 청소년에 교복지원

남동구, 이웃돕기 모금액으로 50명 후원

최근 고가의 교복가격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동구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된 이웃돕기 모금액으로, 관내 17개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2007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총50명에게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교복는만으로 인해 5월부터 교복을 입거나, 학교별 공동구매가 아루어질 것이란 보도가 있었으나, 인천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며, 일부 학교에서는 2007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학생과 학부형의 의사에 따라 교복 및 사복 착용을 병행하여 5월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감안하여 학생복 교환권의 유효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제품의 품질·가격·선호도·대표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교복을 소화하고, 불당이 충분한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 선정하여 이번 설 연휴까지 학생복 교환권을 제부할 계획이다.

/ 박근식 기자 bgs@hyundailibo.com

서울일보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 성료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등 70여개 체험

박은영 기자 / 2007년 남동복지한마당 행사가 지난 7일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사물놀이와 여성풍자 공연을 시작으로 구청체육관과 야외 상황판에 치러졌다.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체육·관광 등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여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과 참여의 축제로 한국에서는 최초라는 것.

무대공연 행사는 인천시청소년수련관의 난타공연과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의 그룹사운드 공연으로 축제의 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 밖에도 석재심리, 목공이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자연미술체험 등 총 70여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남동구 소년소녀오케스트라 합창단의 공연과 경해훈 마술사의 매직쇼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문장생 남동구의회 의장과 이미, 김기수 동부교육청장 등 각계각층의 지역인사와 많은 주민이 참석해 참여와 나눔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었다.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이날 추사랑 봉에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방 행사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자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고 남동구청과 한국전자공업(주)사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주민서비스관련 단체 70여 기관이 참여하여 축제 무드를 살리게 했다.

시민일보 2007년 08월 09일 008면

음악회 수익금으로 결식아동 도와

독거노인등 400명에 라면·참치세트 전달

남동구 사랑나누기추진委

남동구 사랑나누기운동 추진위원회가 행사수익금으로 마련한 주·부식류 등을 결식학생 및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구청장 윤태진) 사랑나누기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근배)가 지난 7일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음악회를 진행했다.

8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급식물품 지원은 지난달 12일 개최된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 행사 수익금으로 결식학생 30명, 독거노인 가구 100명에게 1인당 밑이 1포(20kg), 라면과 참치세트 1박스 등 총 3700만원 상당의 주·부식류를 전달하게 된 것.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이날 경찰서에 장석현 "남동구 사랑나누기운동 추진위 임원는 해외의 사정보다 인간관계로서 우리 고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한편 남동구 사랑나누기운동 추진위원회는 지난 1998년 12월 구성돼 현재까지 55회에 걸쳐 7284명에게 급식과 자녀장학금 등 총 49454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조성에 앞장서 왔다.

후원 문의는 남동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453-2500)으로 하면 된다.

인천·박상도기자 psd@siminilbo.co.kr

우리일보 07월 13일 008면

인천 남동구, 어르신 보양식 대접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잔동과 만수1동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 모시기가 한창이다.

12일 논현고잔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논현주공 1, 2, 14단지 아파트부녀회에서 지역 어르신 280명을 아파트 경로당으로 초청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마련한 삼계탕 등을 대접했다는 것. 또한 만수1동 새마을부녀회에서도 13일 지역 어르신 350명을 만수새마을금고 3층으로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할 계획이다.

김영국 기자 ykk@wooriilbo.com

우리일보 2007년 05월 31일 017면

남동구, 노인 일자리 사업 박차

노인인력관리센터 사무실 개원 운영

남동구는 관내 노인들의 일자리 개발과 보급 등을 전담할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 내달 1일부터 개원 운영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올년 3월말 현재 2만6천418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업무를 맡는다는 것.

그들만 남동구 거주 노인들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구에서 운영하는 환경지킴이, 실버유아보조강사, 노노 홈 케어 등 416개 일자리에서 일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관리센터 개소와 함께 남동공단 내 공장은 물론 주유소 파견근무 등 일자리가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들의 좋은 일자리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노인인력관리센터 사무실은 규형 5층에 설치 운영되며 근무인력은 소장과 팀장, 직원 등 총 4명으로 올해 운영 예산은 1억2천250만원이나 향후 사업 규모에 따라 직원 증원은 물론 운영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김영국 기자 ykk@wooriilbo.com

경기도민일보 2007년 12월 26일 수요일 010면 지역 15.8 × 12.6 ㎝

도림동 경로당 신축 이전 개관식

노인 복지증진 일자리 확충

남동구(구청장 윤태진) 도림동 경로당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지난 24일 신축 이전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윤태진 구청장, 윤창열 구의회의장 등 지역인사와 주민 및 노인회 회원을 비롯한 150여명의 참석했다.

도림동 경로당이 신축 이전했다.

지난 6월에 착공해 이번에 개관한 도림동 경로당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민되면서 지난해 11월 철거된 예전 경로당이 받은 환지보지가 협소해 새로운 대체부지에 신축됐다.

도림동 372-22번지에 자리한 도림동 경로당은 대지 475.7㎡에 연면적 166㎡, 지상3층으로 건립됐으며 사업비는 도림지구 32블럭 벽산블루밍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자인 ㈜지석의 개발이익금 일부를 투입했다.

도림동경로당의 주 시설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주방, 화장실이며 부대시설은 팔각정, 벤치, 주차장, 목재테크 등이다.

윤태진 구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대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증진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연기기자

시대일보 2007년 10월 24일 수요일 005면 인천 10.1 × 9.2 ㎝

2007 남동구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정상모)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실버취업박람회를 내달 7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 센터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버취업박람회는 장,노년층의 적합 직종 틈새시장을 새롭게 개척하여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를 마련하는 한편,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 남동구가 주최하고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와 취업전문 기관인 인크루트(주)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50여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장,노년층은 주민등록증과 이력서, 사진 2매(반명함판)를 준비하여 당일 행사장으로 나오면 된다.

김갑환기자 gngang@sidaeilbo.co.kr

기호일보 2007년 07월 19일 006면

남동구에 무료 노인요양원

총 19억여원 투자 착공… 치매·중풍환자 수용

인천 남동구에서는 18일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만수 무료 노인전문요양원'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

총 19억5천만 원이 들어가는 만수 무료 노인전문요양원은 건축 연면적 1천323.3㎡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이 자리에서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이번 만수 무료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로 구 노인복지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구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만수감리교회)에서 운영할 만수노인요양원은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빠르면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경재 기자

시민일보 2007년 07월 31일 009면

노인복지관 '별관' 짓는다

남동구, 13억 들여 체력단련실등 갖춰

남동구(구청장 윤태진)는 노인들의 여가욕구 충족 및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별관을 증축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증축되는 별관은 총 13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 기존 노인복지회관(구월동 1114의3번지)과 연결통로를 만들어 서로 왕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연면적 835.32㎡, 지상 3층 규모로 취미교실,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전통문화교실 어학원 등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용성, 편의성 및 미관을 고려해 서 설계했다"며, "체적한 노인여가 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여가 활동의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실도 기자 psd@siminilbo.co.kr

센대일보 2007년 10월 05일 금요일 006면 인천 16.0 × 14.8 ㎝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 지원

남동구 합동추진반 구성·상담센터 마련등 본격 추진

인천시 남동구가 2007년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확대사업 추진과 관련해 합동추진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영주귀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

이를 위해 구는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2층에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에 필요한 서류 준비등 제반이 없도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구에서는 논현고잔동 상담센터에 합동추진반을 파견, 10월 1일 1차로 귀국한 사할린 한인 60명을 대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논현고잔동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 및 초기상담과 주민등록관련 지원을, 민원지적과(호적팀)에서는 '성 및 본' 창설허가신청서 작성, 취적처리 관련지원을, 문화홍보실에서는 주민등록증발급을 사진촬영지원을, 하나은행(논현지점)에서는 신규계좌 개설 지원을,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임시캠프설치 등 일상생활 적응 지원을, 기타 지역주민들의 후원으로 도장 및 태극기 지원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날 관내진 남동구청장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현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 재정적 지원을 주문했다.

총 11회에 걸쳐 290세대 582명이 입국하는 사할린동포는 남동구는 현동 국민임대아파트 5,14단지에 나누어 입주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bpk@myundaiilbo.com

겨기일보 2007년 12월 25일 화요일 106면 사회 20.7 × 12.7 ㎝

가슴 따뜻한 '인천의 겨울'

목욕봉사·테안 기름제거 등 '궂은일 앞장서'

남동구 구월4동 새마을부녀회, 올 단체상 수상 기쁨

"이웃 동네에서라도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나 달려 가겠습니다."

/2007년 인천시 우수자원봉사자 단체상을 수상한 남동구 구월4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임종점) 회원들은 봉사활동 손 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장소와 비를 가리지 않고 만숨에 달려간다.

22명으로 구성된 부녀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주변의 어른신 100~150세명에게 무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점심 식사 대접 활동은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부녀회 회원들의 정성이 따뜻하고,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의 일반 어르신은 물론 이웃 동네 어른신들까지 줄게 찾는 명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구월4동 부녀회원들에게 동네 청소와 나무심기와 같은 일반적인 봉사활동은 임상 종활의 보람과 즐거움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이 지역은 비록 주택과 빌라가 밀집돼 구 도심이지만 홀에 거리와 골목골목은 부녀회원들의 봉사와 정성으로 어느 신도시 못지않게 반짝반짝 빛을 발한다.

부녀회원들은 평소에도 관내 봉사활동은 물론 만수3동복지관 등 이웃 동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목욕과 만찬 만들기, 식사 배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4동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주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회장과 임부 회원은 기름 유출 사태로 시름에 빠진 태안 앞 바다를 찾아 기름제거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며 지진 바다를 어부인지기도 했다.

/류복경기자 ryu@kjpb.co.kr

남동구 공직자

➤➤➤ 구민의 만족과 감동을 위하여 .....

경인일보 2007년 08월 13일 i17면

화분·방석 NO! 마음만 받자

남동구, 인사발령자에 선물관행 바꾸기

'화분, 방석 No!' 인천 남동구가 '화분 안보내기 운동'과 '전출자 방석 구입 안하기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승진이나 인사이동시 축하의 의미로 인사 발령자에게 난(蘭) 화분을 보내거나 방석을 구입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화분이나 방석이 아니더라도 전자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얼마든지 축하의 마음과 동료애를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 화분 및 방석 보내기를 근절시키기로 한 것이다. 또 사무실에 놓여있는 많은 화분들이 민원인들에게 권위의식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도 이 운동을 펼치는 이유 중 하나다.

함의식 부구청장은 "직원들의 해외 및 장기 출장시 선물만사오기 운동은 정착됐으나 아직까지도 인사 이동시 직원간에 축하와 동료애로 난을 보내고 있다"며 "전출 직원 격려 차원에서 방석을 새로 구입해 주는 관행도 공직사회에서 바꿔야할 풍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임성훈기자·hoon@kyeongin.com

인천신문 01월 23일 014면

남동구 공익근무요원 '사랑의 헌혈'

전국적으로 헌혈 공급량이 급격히 준 가운데 22일 인천시 남동구청을 방문한 대한적십자사 인천헌혈원 이동식 헌혈차량에서 남동구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이날 남동구 공직자와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김주희기자 juhee@ichoday.co.kr

▲ 관련기사 보도현황
인천신문, 한매일보, 경기매일 (3개사)

우리일보 2007년 07월 12일 019면

친절한 민원 감동받아 보마트 배달이요!

동사무소 직원이 장애인 가정 방문 서비스

한 농민이 동사무소 직원의 친절한 봉사정신에 감사한 뜻으로 토마토 한 상자를 보내 상큼한 화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0일 광교1동에서는 남동구 남촌도림동사무소 민원 담당 직원이 한결같은 인내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줘 감사의 뜻으로 자신이 직접 재배한 토마토 한 상자를 전달했다.

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의 전통은 지체장애아 심해 외출은 힘들어 외신이 넘도록 외부와 접촉도 못하는 상황으로 평소 민원을 대신 방문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다는 것. 이에 담당자 감사함에는 현상황에서 인간대접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고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옥 기자

현대일보 2007년 04월 04일 001면

"청렴한 공무원" 다짐

인천 남동구는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500여명이 모여 반부패 부정공직사회를 위한 '청렴생활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실천서약을 했다.

남동구 공무원행동강령 구체의 주요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금지 등 10개 항목이며, 신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강령 실천결의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심사·평가으로서 실질적인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고 소양교육을 통해 반부패 부정사회 운동 혹산과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박건식 기자 bgs@yundailbo.com

시대일보 2007년 05월 16일 005면

남동구, 전 직원자질 향상 경쟁력 제고

"외국어 배우기" 교육열기 '후끈'

시민일보 2007년 10월 10일 수요일 011면 인천 15.4 x 10.6 ㎝

미소로 하루일과 시작합니다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친절한 인사에 한 발자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주 2회씩 테마대를 지정, 일일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테마 내용은 '입는 음악 따라하기'를 비롯해 '영어로 인사하기' '미소짓기' '친동하기' '열사랑 감사해주기' '가위바위보로 하루 봉사하기' '스트레칭 따라하기' '박수치기' 등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일과 시작 10분전에 실시하고 있다.

일일테마프로그램은 운영은 하루 일과 시작 10 분전 방송을 통해 전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과제로 운영, 실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이다.

특히 올 하반기 구가 역점시 추진한 1천만원 이상 공사, 3억원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을 대상으로 총 23개 이을 위해 구는 지난 9월 남동구 직원을 지혜로서 선발된 사내강사 28명과 구청 생애학습의회의 1명이 테마전달자로 출연시켰으며 문태진 남동구청장을 테마전달자로 참여 솔한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구 관계자는 "출퇴고 활기찬 분위에 시작한 고객에게 공정과 청부시다지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직원호응도 설문 실시 후 결과에 따라 '2008 고객만족 행정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동욱 기자 sod@seminilbo.co.kr

화요타임 2007년 10월 23일 목요일 007면 지방 15.4 x 8.7 ㎝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매우 양호

남동, 5일간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인천시 남동구가 부조리의 근원인 담합임을, 금품제공의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이행실태를 지난 제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점검한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각 부서에서 추진한 1천만원 이상 공사, 3억원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을 대상으로 총 23개 (건설공사 19건, 설계용역 3건, 물품구매등 2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서명으로는 ▲계약시 청렴계약서 서명건수 여부, ▲입찰참가서식 내용을 계약 통지요지으로 넣기 여부 입증으로, 청렴결과 등을 서약 내용을 계약 통지요지으로 기간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환은 전 부서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계약조건으로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부서에서 미이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청렴계약제가 효과적인 부패방지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기적인 점검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가청렴위에서 발표한 남동구 청렴도(10점 만점)는 2006년 5.22점, 2007년 5.4점, 2008년도 6.7점으로 구주위 개선되고 있다.

유기동기자 yukidd@hanmail.net

기호일보 2007년 11월 05일 월요일 017면 사람 9.2 x 9.3 ㎝

인천 남동구 배철기 씨 시인 등단

인천시 남동구 공무원 문학동우회(회장 여강 최재효) 배철기(42)씨가 지난 10월초 중앙문예지인 순수문학을 통해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김영재 기자 yjkim@khaibo.co.kr

연대일보 2007년 09월 17일 월요일 007면 인천 15.5 x 6.4 ㎝

남동구, 중간관리자 워크숍 개최

인천시 남동구가 지방행정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핵심주체인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남한강 연수원(경기 양평소재)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11일부터 14일까지 2기(각 1박 2일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워크숍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교육을 주관했으며, 일반직 4~6급을 대상으로 총 18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1일차에는 관리자 기본역할과 사명,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혁신리더십 강화, Fun리더십 체험으로, 2일차에는 커뮤니케이션&코칭스킬, 벽 없는 조직의 복심, 조직혁신을 위한 제언을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한편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지난 13일 워크숍현장을 방문해 참가자를 격려하고, "조직 경쟁력강화의 성공열쇠는 중간관리자의 부단한 변화와 혁신이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급변하는 조직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의 리더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건식 기자 bgs@yundailbo.com

우리일보 2007년 12월 18일 화요일 019면 사회/교육 15.7 x 16.2 ㎝

남동구청 직원,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기름제거작업

▲ 17일 오전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 도착한 남동구청 직원들이 부직포 등을 이용,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청 직원 48명은 17일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지역의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기름제거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의회입정 및 선거일정을 감안해 구 본청직원으로만 참여했다는 것.

구는 이날 방제활동에 필요한 보호의, 장화, 장갑, 방진마스크, 양동이 등 장비 일체와 식수, 식사 등 필요물품을 모두 준비했다.

곽광희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이날 양쪽에 줄은 기름과 타르덩어리 제거 및 해안에 떠내려 온 유류 제거작업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은 "TV나 신문에서 보는 것 보다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니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하게 느껴진다"며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닦았다.

이에 대해 곽광희 보건소장은 "주말에는 봉사인력이 충분하다고 느껴 뿐입 봉사단을 무리게 됐다"며 "비록 오늘 하루뿐이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지난 15일 의원 6명, 직원 9명 등 15명이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일반다 일부다 등 방문, 준비해 간 부직포 5장지와 제해대책용 마대자루 200장 등을 이용해 기름제거작업을 펼쳤다.

김영국 기자 ykk@wooribo.com

한 해의 결실

➤➤➤ 일등 남동을 위하여 .....

전국매일 2007년 12월 31일 월요일 013면 행정 11.2 × 10.1 ㎝

남동구, 주요시책 추진·노점상 정비 등 최우수

행정실적 3년연속 빛났다

인천시 남동구가 2007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인천시가 올해 시정 주요 시책중 군·구가 수행하는 위임사무 및 보조금 지원업무중에서 11분야 27개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이같이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는 시정아이디어공모, 시민도서기증운동 등 시정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분야에서 최우수를,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 추진, 지방재정 조기집행, 긴급복지지원 129기동반운영, 보건향상증진관리 등 6개 분야에서 우수를, 체납세 징수실적,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지도, 환경행정 종합평가, 민원행정서비스 이행, 행정정보시스템, 업무적용 추진상황 등 5개 분야에서 장려를 차지하는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27개 시책사업 주관 부서에서 1차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로 평가 결과를 취합해 가중치를 부여한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mchs@jeonmae.co.kr>

중부일보 2007년 03월 26일 101면

인천시 지방재정 '최우수' 선정

정부 특별교부세 10억지원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지방재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충청남도 등과 함께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2006년 지방재정 최우수 5개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이번에 지방재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인천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세 징수를 높이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각종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왔다.

한편 이번 행자부가 선정한 최우수 기관에는 인천과 충남 이외에도 전남 나주시와 경기 연천군, 대구 달서구 등이 뽑혔다.

홍저경기자/mkor@joongbao.com

시민일보 03월 02일 015면

시 '녹지조성사업' 최우수상에 남동구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2006년 인천광역시 종합평가에서 '녹지 조성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가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근린공원 사업으로 지난해 지역내 구월초등학교 등 15개 학교에 대한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에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공적으로 추진, 그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도 9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송담여고 등 8개 학교를 학교별 특성 및 학생들의 이용 형태를 고려한 생태숲 생태연못, 계곡 등 수경시설을 조성해 학생들이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지역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도 기자 psd@siminilbo.co.kr

시민일보 2007년 09월 18일 화요일 009면 인천 21.0 × 17.7 ㎝

남동구 만수1동, '쓰레기봉투 적정 관리' 등 7개사업

환경지킴이 우수사례로 선정

남동구 노인회원은 구상한 환경지킴이들이 개모임 기간을 위해 재조직업을 하고 있다.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2007년도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심사기 평가 결과를 발표, 만수1동 '쓰레기 봉투의 적정관리' 외 1건, 만수6동의 '꽃동네 가꾸기 사업' 외 1건, 만수6동 '장수한강 꽃길 가꾸기 사업', 남동회, 원동 '주요대로변 꽃이 파종 및 심부로 등 관리 사업' 외 1건 등 7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심사기평가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주민 신청(8개 사업 20여명)과 예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지표에 대해서 평소(49.9%)353명)가 일조 있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환경지킴이 사업 후 동네 정소상태에 대해서는 75.12%(265명)정도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사업지속여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88.50%(372명)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환경지킴이 사업참여자들은 보수에 관련해서 만족없는는 응답이 56.19%(105명)로 할인요요가 만족을 하는 반면, 나머 지 지고 응답하는 경우도 38.0%(72명)이나 해 향후 일반인상 부분이 고려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1일 입금수준은 1만5000원이며, 전량 보수로는 2만원에서 2만5000원선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근무경지는 81.28%(153명)로 대체로 적절한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지속여부 희망도 88.4%(166명)로 응답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환경지킴이 노인회인 경우 응답율 과정으로 인한 업사명 등 경감을 고려해 설명이해가 상한 기간인 지난 8월31일부터 30일까지는 추석기간을 맞는 것을 비롯, 한때 60~65세까지의 노인들은 공공근로사업에도 신청할 수가 없어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사업장 여가 기능이요를 생활을 위해 응용 사에 집중했다.

박상도 기자 psd@siminilbo.co.kr

현대일보 2007년 05월 03일 006면

전국 산불현장 통합지휘 경연대회

인천시 남동구는 2일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래산에서 시·도 자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2007년 전국 산불현장 통합지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훈련은 기상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진화요원을 출동시키는 한편, 현장에 산불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진화대원, 공무원, 경찰, 소방대원, 군인, 지역주민 등 500여명의 인화인력과 실전을 방불케하는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으로 산불발생 1시간만에 완벽하게 진화하는 능력을 선보였다.

/박근식 기자 bgs@hyundailbo.com

2007 금연클리닉사업 전국평가대회

남동구보건소 '으뜸 우수기관' 선정

인천시 남동구보건소가 '2007년도 금연클리닉사업 전국평가대회'에서 전국 으뜸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25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대회에서 남동보건소는 금연클리닉사업 운영과 운영시설, 다양한 홍보, 금연등록율, 금연성공율 등 금연클리닉사업 전반에 걸쳐 만점을 받았다.

남동구는 올해 금연 등록목표인 1천600명를 초과한 2천793명(185%)을 등록했으며 4주이상 금연 2천138명, 6개월 금연 1천210명을 성공시켰다.

특히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금연상담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유흥주점 업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야간에 찾아가서 금연상담을 해 주는 등 여성흡연자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우리일보 2007년 12월 05일 수요일 019면 사회/교육 10.3 × 16.6 ㎝

남동구 보건소, 겹경사났다!

곽광희 남동구 보건소장, 대통령표창 수상

▲ 곽광희 남동구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수여받고 있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최한 2007년 전염병관리사업 종합평가 대회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곽광희 남동구 보건소장은 전염병관리사업 유공분야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 달 29일과 30일 양일간 경남 부산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1년간의 방역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2008년도 사업방향 등을 모색하면서 2007년도 전염병관리사업 유공자와 16개 시·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25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은 최우수기관으로 인천시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장려기관으로는 남동구와 함께 계양구가 선정됐다.

김영국 기자 ykk@woorilbo.com